

발 간 물 쪽 번 호

11-8553554-000004-01

2023년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섬 특성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3. 12.

2023년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섬 특성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3. 12.

CONTENTS

I. 과업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6
2. 과업의 범위	7
3. 과업의 방법	8

II. 섬 특성화사업의 이해

1. 행정안전부 섬 특성화사업	12
2. 인천형 섬 특성화사업	13
3. 인천시 섬 특성화사업 추진 현황	15

III. (1단계) 역량기반조성 마을 모니터링

1. 강화군 교동도_ 난곶마을	18
2. 강화군 주문도_ 살고 싶은 갯벌 섬마을	21
3. 옹진군 문갑도_ 문갑 도시락마을	24
4. 옹진군 소청도_ 서해 청정섬 소청마을	28

IV. (2단계) 주력분야조성 마을 모니터링

1. 옹진군 대연평도_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34
2. 옹진군 덕적도_ 으뜸섬 특화작물마을	36
3. 옹진군 영흥도_ 내동마을 (십리포랜드)	40
4. 옹진군 영흥도_ 섬나들이 진두마을	44
5. 강화군 교동도_ 동산리 평화 생태마을	48
6. 강화군 동검도_ 행복검문소 동검리마을	52
7. 옹진군 대청도_ 대청 섬마을 지오비즈니스	56
8. 서구 세어도_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60

V. (3단계) 확장연계조성 마을 모니터링

1. 옹진군 덕적도_ 농산물의 진리, 진리 단호박 마을	66
2. 옹진군 소이작도_ 소이작 바다생태마을	70
3. 옹진군 신시모도_ 삼형제 보물마을	76
4. 중구 소무의도_ 춤추는 소무의도	80

VI. 자립마을 모니터링

옹진군 대이작도_ 대이작 바다생태마을	86
옹진군 덕적도_ 나그네섬, 덕적도	91
옹진군 장봉도_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96

[참고자료] 전문가 의견	101
---------------	-----



2023년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섬 특성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I ▶

과업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방법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추진 배경

- 급격한 도시화 및 인구 공동화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그중 섬 특성화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전국에 있는 섬 지역의 소득 창출 및 마을 활성화에 기여 중임
- 인천시는 19개의 섬에서 본 사업을 진행 또는 완료한 바 있음(2022. 12. 기준). 이에 인천섬발전지원센터는 섬 특성화사업에 참여한 인천 섬 특성화마을에 대하여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인천 섬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함
- 인천섬발전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조직으로서 사업관리·지역사회 역량강화·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등의 섬 발전을 위한 다각적 기능을 갖추고 있음. 섬 특성화마을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섬 특성화사업 관리를 실시하는 등 행정조직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표 1-1 | 섬 특성화사업의 정의

섬 특성화사업이란?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소득 사업 및 마을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추진 목적

- 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연간 수천억¹⁾ 규모의 국가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추진기관의 행정력이 대부분 “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집중되어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왔음. 특히 사업기간이 종료된 완료마을의 경우, 마을별 전담 조직의 부재로 인하여 사업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미비한 것이 현실임. 본 과업은 인천 섬 특성화사업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됨
 - 인천 섬 특성화사업의 기초자료 조사 및 정리를 통한 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
 - 대상지별 맞춤형 진단과 발전 방향 도출을 통한 실효성 및 지속성 증진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접경지역 15개 시·군 및 「섬 발전 촉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88개 개발 대상섬 등 특수상황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2023년 기준 216,48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출처: 행정안전부).

2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인천시 내 섬 특성화사업을 진행 또는 완료한 19개 마을²⁾ 임

■ 시간적 범위

- 자료수집 기준은 2022년 12월로, 모니터링 수행 기간은 2023년 5~12월로 설정함³⁾

■ 내용적 범위

- 본 과업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첫째, 모니터링 대상 마을의 행정구역, 면적, 특산물, 관광자원 등 일반적 현황을 조사하였음. 둘째, 대상 마을의 섬 특성화사업 현황을 조사하였음. 대상지별 주요사업,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실적 등을 종합 정리하여 섬 특성화사업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셋째, 현장실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표 1-2>와 같이 「섬 특성화사업 추진단계별 모니터링 항목」에 의거하여 조사·분석하였음

표 1-2 섬 특성화사업 추진단계별 모니터링 항목

추진단계	사업내용	모니터링 항목
1단계	주민조직화, 자원조사, 주민역량제고 등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 마을현황진단 및 자산발굴에 대한 사항 - 마을 미래상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 마을공동체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사항
2단계	주력사업 인프라 구축, 운영활성화 추진, 확장 및 연계사업 발굴 등	- 마을 사업 계획에 대한 사항 - 마을 사업화 지원에 대한 사항 - 마을 사업화 실습에 대한 사항 - 마을기업 설립에 대한 사항
3단계	확장·연계사업 인프라 구축, 운영활성화 추진 등	- 주민 소득사업 발굴에 대한 사항 - 마을 홍보사업 발굴에 대한 사항
4단계	자립·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 사업 현황진단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 사업 모델 유형에 따른 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
완료마을	현황점검 및 네트워크 중개	- 마을 공동체 운영현황에 대한 사항 - 마을사업 주요현황에 대한 사항

2) 인천광역시에는 총 19개 마을에서 섬특성화사업을 진행 또는 완료함(2022. 12. 기준)

3) 자료수집 기준과 모니터링 수행 기간이 다른 이유는 수집 자료의 정합성과 모니터링 기록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3

과업의 방법

■ 수행 절차

- 본 과업의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됨

STEP 1 기초자료 수집

- 첫 번째 단계는 기초자료 수집으로, 모니터링 대상지별 행정구역, 면적, 특산물, 관광자원 등 마을의 일반적 현황과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 실적 등 섬 특성화사업 추진 현황을 조사·정리함

STEP 2 현장 방문조사

- 두 번째 단계는 섬 특성화마을 현장 조사로, 마을 현장실사를 통하여 시설 등 인프라(H/W)의 운영·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추진위원장 등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추진조직, 수익구조 등의 운영 체계(S/W)를 점검함

STEP 3 기록화 실시

- 세 번째 단계는 조사한 내용을 기록화하는 것으로, 주민 인터뷰 내용, 현장 사진 등의 현장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문서화함

STEP 4 전문가 자문

- 네 번째 단계는 인천 섬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의뢰하는 것임. 섬 특성화사업 운영·관리 현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대상지별 발전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본 과업의 시사점을 도출함

STEP 5 보고서 제작

- 다섯 번째 단계는 모니터링 실시 기록과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정리하여 「2023년 인천 섬 특성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임



|그림 1-1| 모니터링 수행 절차





2023년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섬 특성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II ▶

섬 특성화사업의 이해

1. 행정안전부 섬 특성화사업
2. 인천형 섬 특성화사업
3. 인천시 섬 특성화사업 추진 현황



1

▶ 행정안전부 섬 특성화사업

■ 사업의 개념

- 섬 특성화사업이란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소득사업 및 마을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는 낙후 섬 지역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공모사업 방식으로 섬 특성화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역 소득증대를 목표로 추진되며, 기초생활기반 구축과 경관 개선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 단위 공동체의 활성화하기를 추구함.
- 그동안 섬 지역은 기상 악화로 인한 잦은 해상 통제, 열악한 경제 기반, 인구 고령화 등의 이유로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음. 이에 정부는 섬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굴·상품화하여, 섬 주민에게 새로운 소득 자원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표 2-1| 섬 특성화사업 추진단계별 주요 내용⁴⁾

단계	명칭	주요내용	예산	기간	세부내용
1단계	역량기반 조성	사전역량강화, 마을계획 수립 등	4억	2년	주민조직화, 자원조사, 주민역량제고 등을 통한 마을 마스터플랜 2단계 마을 계획 수립
2단계	주력분야 조성	주력사업(1~2개), 운영 활성화 등	9억 내외	2~3년	주력사업(1~2개) 인프라(HW) 구축, 운영활성화(SW) 추진, 확장 및 연계사업 발굴 등 3단계 마을계획 수립
3단계	확장연계 조성	사업확장, 운영 활성화 등	30억 내외	3년	확장·연계 사업 인프라(HW) 구축, 운영활성화(SW) 추진, 주민이 자립·운영할 수 있는 4단계 마을계획 수립
4단계	자립기반 조성	고도화사업, 역량강화 등	7억 내외	2년	주민이 자립·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HW) 구축,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SW 사업추진

4) 한국섬진흥원 홈페이지 “특성화사업 안내” (<https://www.kidi.re.kr/contents.do?id=characterization>)

2

인천형 섬 특성화사업

■ 사업의 개념

- 인천형 섬 특성화사업은 행정안전부 섬 특성화사업과 인천의 자율적 노력을 결합하여 인천 섬 주민들이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임. 인천 섬 지역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기초생활기반 구축, 경관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임.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인천 섬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상품화하여, 섬 주민에게는 새로운 소득 자원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즉, 주민·행정·중간지원조직 등이 협업하여 마을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공동체 비즈니스 활동을 실시하여 주민 자립역량과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사업임

■ 추진체계⁵⁾

- 인천형 섬 특성화사업은 “살고 싶은 섬 마을,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추진됨. 첫 번째 추진 전략은 예비마을 발굴·지원으로, 주민 참여자를 확대하고 상호 신뢰·소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두 번째 추진전략은 특성화마을 맞춤 지원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실시함. 세 번째 추진전략은 지속가능한 자립마을 지원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킹 등을 실시함



[그림 2-1] 인천형 섬 특성화사업 운영체계도

5) 인천섬발전지원센터, 「도서특성화사업 추진마을 평가 및 모니터링(2021)」 참고 및 재구성

|표 2-2| 인천형 섬 특성화사업의 비전 및 추진체계

비전	살고 싶은 섬 마을 함께 만드는 인천		
정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활동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행정안전부 섬 특성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천형 섬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체계	행정안전부 섬 특성화사업을 중심으로 인천형 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체계화 예비마을 ▶ 특성화마을 ▶ 자립마을		
추진 전략	(섬 특성화사업 공모 준비마을) 예비마을 발굴·지원	(섬 특성화사업 선정마을) 특성화마을 맞춤 지원	(섬 특성화사업 완료마을) 지속가능한 자립마을 지원
추진 과제	① 이웃 만들기 - 주민 참여자 확대 ② 교육의 다양화 - 상호 신뢰·소통	① 1단계(역량기반조성) ② 2단계(주력분야조성) ③ 3단계(확장연계조성) ④ 4단계(자립기반조성)	①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 평가, 공유, 홍보 ② 네트워크 및 중개 - 이해관계자와 자원과 기술의 중개

|표 2-3| 인천형 섬 특성화사업의 추진 방법

예비마을 발굴·지원	전략) 예비특성화 (주민의 참여확대 + 신뢰형성) ▶ 본 사업 1 ~ 4단계 공모신청		
	•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실행주체가 주민이 되도록 자리매김 확산 • 본 사업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선행교육		
특성화마을 맞춤 지원	추진과제		
	• 이웃 만들기를 통해 참여자의 범위 확대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 마을로 확대) • 상호소통을 위한 교육을 통해 신뢰와 인정하는 방법을 습득 (서로 대화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됨)		
	1단계	2년/4억원	주민역량교육, 마을자원 발굴 및 마을계획 수립(2~3차)
	2단계	2~3년/9억원 내외	1~2개 단위사업, 주민교육, 마을계획 보완 및 컨설팅
	3단계	3년/30억원 내외	사업 확장, 주민교육, 마을계획 보완 및 고도화 계획 수립, 컨설팅
지속가능한 자립마을	4단계	2년/7억원 내외	3단계사업 고도화, 주민교육(전문교육), 컨설팅
	전략) 사후관리 ▶ 모니터링 + 네트워크 중개		
	• 본 사업 4단계까지 완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및 마을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여 사후관리 • 행정지원 없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및 협력 등 네트워크 중개		
	추진과제		
	• 모니터링(마을공동체 활동 + 마을사업 운영상태) → 공유·홍보 • 네트워크 중개(타 부처 공모사업, 이해관계자 연결 등) • 향후 섬발전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에서 관리		

3

인천시 섬 특성화사업 추진 현황

■ 추진 현황

-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19개의 인천 섬 마을이 섬 특성화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표 2-4>와 같음

|표 2-4| 인천시 섬 특성화사업 추진 현황(2022. 12. 기준)⁶⁾

단계	섬명	마을명	행정구역명			사업추진현황	
						대표사업	사업기간
1단계	교동도	난곶마을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	해바라기정원 활성화	2021~2022년
	주문도	살고 싶은 갯벌 섬마을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땅콩막걸리 제조·판매	2022~2022년
	문갑도	문갑 도시락마을	옹진군	덕적면	문갑리	문갑도여행자센터 운영	2021~2022년
	소청도	서해 청정섬 소청마을	옹진군	대청면	소청1·2리	해변식당 운영 활성화	2022~2023년
2단계	대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베이커리 조성·운영	2021~2023년
	덕적도	으름실 특화작물마을	옹진군	덕적면	북1리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2022~2024년
	영흥도	내동마을 (십리포랜드)	옹진군	영흥면	내1·2리	십리포해수욕장 명소화	2022~2024년
	영흥도	섬나들이 진두마을	옹진군	영흥면	내5리	카페 터미널 운영 활성화	2022~2023년
	교동도	동산리 평화 생태마을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	연꽃·칠면초 군락지 조성	2021~2022년
	동검도	행복검문소 동검리마을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경관정비·체험 프로그램 운영	2019~2022년
	대청도	대청 섬마을 지오비즈니스	옹진군	대청면	대청3리	홍어 가공상품 판매	2019~2022년
	세어도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서 구	원창동	-	야생화 테마 단지 조성	2019~2021년
3단계	덕적도	진리 단호박 마을	옹진군	덕적면	진1리	단호박 가공상품 판매	2020~2023년
	소이작도	소이작 바다생태마을	옹진군	자월면	이작2리	소이작도 관광기반 구축	2018~2022년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마을	옹진군	북도면	-	보물섬 문화예술마을 조성	2019~2022년
	소무의도	춤추는 소무의도	중 구	무의동	-	소무의스토리움 조성·운영	2019~2021년
시범 마을 육성	대이작도	대이작 바다생태마을	옹진군	자월면	이작1·3리	해양생태체험관 운영	2017~2018년
	덕적도	나그네섬, 덕적도	옹진군	덕적면	-	바다역시장 및 호박회관 활성화	2017~2018년
	장봉도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옹진군	북도면	장봉1~4리	트레킹 특화 사업 개발	2017~2018년

6) 기초자치단체(강화군, 옹진군, 중구, 서구)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작성



2023년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섬 특성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III ▶

1단계

역량기반조성 마을 모니터링

1. 강화군 교동도
- 난곶마을
2. 강화군 주문도
- 살고 싶은 갯벌 섬마을
3. 옹진군 문갑도
- 문갑 도시락마을
4. 옹진군 소청도
- 서해 청정섬 소청마을



교통도

01. 난곶마을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	면적	2.04km ²
특산물	청보리, 해바라기, 쌀(고시히까리),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		
관광자원	난정저수지(늪시터), 수정산, 해바라기 정원		
접근성	연도교(교동대교) 및 국도 48호선 이용, 1시간 30분 소요		

특성화사업 현황

사업명	난곶마을 특성화사업		대표사업	해바라기 정원 활성화	
소관부서	강화군 도시개발과		위탁기관	-	
추진단계	1단계 완료 ⁷⁾	사업기간	'21~'22년	사업비	5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21)	• 마을계획 수립 - 해바라기마을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 해바라기 정원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품 로고 및 캐릭터 개발				
	• 주민역량강화(1~3차) - 농산물 판매전략 마케팅 교육 실시 - 1차(2021.11.16.), 2차(2021.12.07.), 3차(2021.12.13.)				
2차년도 (2022)	• 해바라기 상품 레시피 개발 및 소비자 총평회 실시 - 시장조사 사전미팅(2022.03.05.) - 상품개발 사전미팅(2022.03.11.) - 중간평가 시 식 회(2022.03.25.) - 최종평가 시 식 회(2022.04.06.)				
	• 주민역량강화(4차) - 농산물 판매전략 마케팅 교육 실시 (2022.03.18.)				

7) 섬 특성화사업 2단계 공모 선정 완료 및 '23~'24년 추진 예정

■ 모니터링 내용

○ 마을현황진단 및 자산발굴

- 교동도 난곶마을 특성화사업은 **해바라기 정원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되었음. '14년 교동대교 개통 이후 **교동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여 난곶마을만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마을의 주요 자원인 **난정저수지 인근 유희부지(한국농어촌공사 보유 토지)**를 활용하면 **해바라기 정원 조성 및 마을축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음

○ 마을 미래상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 섬특성화사업 1단계 기간 중 난곶마을만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해바라기정원의 **특화 브랜드를 개발**하였음. 주민들은 4회의 **농산물 판매전략 마케팅 교육**을 받았으며, 타 지역 (제주도)으로 선진 사례지 답사를 다녀왔음

○ 마을공동체 구성 및 운영방안

- 난곶마을 특성화사업은 **난정1리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7명**의 주민들이 법인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해바라기 재배 시기에는 온 마을 주민들이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 마을공동체 활성화

- 난곶마을 특성화사업 추진위원회는 사업 초기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으나, 모니터링일('23. 11.) 기준 특별한 현안사항이 없는 이상 별도의 모임을 가지지는 않음

■ 종합의견

- 난곶마을은 섬특성화사업을 통해 **해바라기 정원을 조성하고 해바라기 축제를 개최**하는 성과를 만들었음. 축제 기간 중 해바라기 정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하루 평균 500~2,000명**에 이를 정도로 성행하였음. 또한 마을 곳곳에 **해바라기 벽화**를 그려 “해바라기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음. 그러나 모니터링일('23. 11.) 기준 일부 주민들은 해바라기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지니고 있음
- 가장 큰 이유는 해바라기 사업의 사업성이 낮기 때문임. 정원 조성을 위해 고령화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에 나섰으나, **해바라기 개화 기간이 7~15일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력 대비 정원 운영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었음**(초기 입장료는 1,000원이었으나 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판단하에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심지어 **최근 2년간은 강우량 과다로 해바라기 재배 성과가 좋지 못하였음**. 이에 주민들은 **연간 다작 가능한 청보리를 심어 주요 사업 소재로 활용하고자 함**
- 정리하자면, 투입되는 노력 대비 낮은 성과를 얻게 된 난곶마을 주민들은 특성화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의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해바라기 정원의 재활성화 방안 및 주민 소득 창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면, 해바라기 씨앗 등의 제조·가공 공간을 조성하여 해바라기 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현장사진



난정 해바라기정원 안내체계 및 전경



마을 곳곳에 그려진 해바라기 벽화

주문도

02 살고 싶은 갯벌 섬마을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	면적	4.50km ²
특산물	소창, 화문석, 사자발약쑥, 인삼, 속노랑고구마, 순무, 쌀		
관광자원	대빈창 해변, 서도중앙교회 등		
접근성	여객선(선수-주문도) 1일 3회 운항, 35분 소요		

특성화사업 현황

사 업 명	살고 싶은 갯벌 섬마을 조성		대표사업	땅콩막걸리 제조·판매	
소관부서	강화군 해양수산물과		위탁기관	-	
추진단계	1단계 완료 ⁸⁾	사업기간	'22~22년	사 업 비	5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22)

• 선진지 견학

- 장소 : 강화도 금풍 양조장, 제주도 주류면허지원센터, 우도 낙화곡주
- 일시 : 1차(2022.05.), 2차(2022.10.)
- 내용 : 양조장, 주류전시관, 양조시설을 탐방 및 벤치마킹하여 향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 사업(땅콩막걸리 제조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주류 제조교육

- 장소 : 강화 금풍양조장
- 일시 : 2022.10.~11. (총 8회 실시)
- 내용 : 막걸리 제조에 필요한 기초 지식 및 양조장 브랜딩, 제품 네이밍 기법 교육

• 법인 설립 교육

- 장소 : 서도면사무소 회의실
- 일시 : 1차(2022.09.), 2차(2022.10.)
- 내용 : 영농조합법인 이해 및 지원 정책, 설립 절차, 농업 법인 형태별 장·단점 및 운영 방법 교육

8) 섬 특성화사업 2단계 공모 선정 완료 및 '23~24년 추진 예정

■ 모니터링 내용

○ 마을현황진단 및 자산발굴

- 주문리는 마을의 주요 자원, 자산,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소득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음. ① **주문도의 땅콩 생산량이 풍부하다는 점**과 ② **방문 관광객의 막걸리 구매 수요가 높다는 점**을 결합하여 **“땅콩 막걸리 제조·판매”**라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었음
- 어획량이 한정적인 해산물과 다르게 **땅콩은 생산량을 쉽게 조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음. **이르면 '26년, 아차도~불음도~주문도 3개 섬을 잇는 연도교가 개통될 예정**이므로 수년 내에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섬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마을 미래상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 주문리의 미래상은 **“먹거리·볼거리·놀거리가 동시에 충족되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음. 땅콩 막걸리 제조·판매와 ATV 대여, 글램핑장 조성 등의 연계 운영 방안을 수립했으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마을 축제를 추가적으로 기획하고자 함
- 첫 실행 단계로 **땅콩 막걸리 제조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졌음. 주민들은 2회의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으며, 8회 이상의 막걸리 제조 교육을 받았음. 또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땅콩 비스킷 등 다과 제조 방법을 교육받았음. 이처럼 주민들은 섬 특성화사업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해왔음
- 지자체와는 월 1회 이상 협의를 진행하는 등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강화군은 양조장 조성을 위해 부지 등 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23. 10.) 설계도 작성 단계까지 완료된 상황임. 이외에도 땅콩 재배 가능 부지 조사, 생산량 예측 등이 수행되었음

○ 마을공동체 구성 및 운영방안

- 주문도 섬 특성화사업은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일시 중단된 상황임('23. 10.). **사업의 주요 소재가 “막걸리”라는 점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주문도 마을 어르신들은 ① **마을의 대표 관광자원이 130년 전통을 지닌 서도중앙교회라는 점**과 ② **주민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주류 제조·판매 사업을 반대하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안으로 **특성화사업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마을의 대표성을 띠도록 하는 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최근 2주간 관련 현수막이 마을 내 게재되어 구성원 공개 모집이 실시되었음

○ 마을공동체 활성화

- 주문도 섬 특성화사업 추진위원회는 주민 15명을 중심으로 일 년 이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음. 추진위원회가 지속적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서도면사무소 회의실)가 제공되었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

■ 종합의견

- 주문리는 마을의 자원 및 현안사항을 사업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중장년층의 추진위원들과 마을 어르신들 간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임
- **주류 제조·판매를 반대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을 약 1년 간 준비해 온 기존 구성원들의 의욕이 저하되지 않을 만한 타협안이 필요한 상황임.** 섬 특성화사업 추진기간 중 “땅콩”과 관련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다수 진행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의 적지 않은 노력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문리의 섬 특성화사업은 땅콩 막걸리뿐 아니라 땅콩 활용 다과 등을 제조·판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주문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하며, 사업 아이템 선정에 대한 세대 간의 타협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장사진



선진지 견학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운영 현장

문갑도

03. 문갑 도시락마을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옹진군 덕적면 문갑리	면적	3.54km ²
특산물	고구마, 굴, 우럭		
관광자원	할미염전망대, 웃골쉼터, 한월리해수욕장, 처녀바위전망대		
접근성	여객선(덕적-문갑) 1일 1회 운항, 20분 소요		

특성화사업 현황

사 업 명	문갑 도시락 특성화사업		대표사업	문갑도여행자센터 운영	
소관부서	옹진군 지역경제과		위탁기관	-	
추진단계	1단계 완료 ⁹⁾	사업기간	'21~'22년	사 업 비	5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21)

• 주민역량강화 용역 1차 추진

- 사업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 리더십 교육 운영(2021.05.~11.)
* 퍼실리테이션 형식 주민워크숍 개최, 주민 주도 사업계획 수립
- 특성화교육 및 선진지 견학 실시(2021.11.~2022.03.)

• 문갑도 여행자센터 인테리어 추진

- 카페 운영 설비 및 인테리어 실시, 전기인입공사(2021.10.~12.)

2차년도
(2022)

• 문갑도 여행자센터 하자보수 점검 및 실시

- 여행자센터 인테리어 하자보수 실시(바닥 누수)
- 여행자센터 건물 누수 보수 조치 사전준비('23년 리모델링 예정)

• 문갑도 여행자센터 운영 컨설팅 및 교육 운영

- 특성화사업 운영법인 조직을 위한 컨설팅 지원(2022.10.)
- 카페 운영을 위한 세무 및 커피 제조교육 운영(2022.10.)

9) 섬 특성화사업 2단계 공모 선정 완료 및 '23~'24년 추진 예정

■ 모니터링 내용

○ 마을현황진단 및 자산발굴

- 문갑도시락마을은 '21~22년 섬 특성화사업 1단계를 완료한 후 '22년 차후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23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단계 사업 준비 과정 중, 마을의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 “문갑도 마을미래설계 현장포럼(20. 11.)”이 개최되었음. 해당 포럼에서 마을 자원 발굴, 사업과제 발굴, 마을 비전 설정, 발전과제 도출, 실행계획서 작성 등이 실시되었으며, ① **문갑마을 꽃길 조성** 및 ② **여행자센터 카페 운영** 등으로 사업 소재에 대한 주민 의견이 모아졌음
- 이후 문갑도시락마을 추진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위 두 방안 중 **가시적 소득 창출이 가능한 “여행자센터 카페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이후 커피 관련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교육** 등이 실시되었으며, '22년 7~10월 약 4달간 카페 시범 운영을 통해 샌드커피 등의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판매하였음

○ 마을 미래상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갑도시락마을의 미래상은 “**가보고 싶은 마을이자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음. 주민들은 **섬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면서도 선진 문화를 갖춘 마을**을 만들기 원함
- 이를 위해 **마을 특화 브랜드 개발, 여행자센터 카페 리모델링, 한평정원(소공원) 및 꽃길 조성** 등의 사업이 계획되고 있음. 특히 문갑도에서 잘 자라는 **엄나무와 고사리**를 **주요 사업 소재로 활용하여 마을 공동 재배장 운영, 마을 축제 운영** 등의 소득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주민들은 엄나무 채취 적기(매년 4월 15~25일)에 “엄나무 축제”를 기획·운영하고자 함. 마을축제 운영 사업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사업임. 문갑도는 “자구리 축제” 등 다년간의 마을축제 개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축제 운영을 통한 소득 창출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 마을공동체 구성 및 운영방안

- 문갑도시락마을에는 특성화사업을 주도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역량 있는 리더(추진위원장)를 비롯하여 **8명의 추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 특성화사업 추진위원회는 '15년 설립된 “**문갑도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내부 조직으로 설립되었으며, 정관 등 조직 운영을 위한 구성원 간 약속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임. 모니터링일 기준('23. 11.) 한 달에 두 번 이상 수시 모임을 가지며 특성화사업의 주요 현안을 의사결정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 활성화

- 문갑도시락마을 주민들은 **뛰어난 역량과 강한 사업 의지를 지니고 있음**. 여행자센터 카페 시범사업 운영 시, 사업 초기단계인 만큼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등으로 적극 참여하였음. 또한 마을 공동 재배장 운영을 위해 유희 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개인 소유의 땅을 10~15년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음

■ 종합의견

- 문갑도시락마을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바탕으로 섬 특성화사업 1단계를 추진 완료하였음. 문갑도는 현재('23. 11.) 인천 출발 시 덕적도를 기항하여야만 방문할 수 있는 섬이지만, '25년 신규 선착장이 착공되어 490톤 급의 직항 선박이 문갑도를 왕복 운항할 예정이므로 향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문갑도는 충분한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민소득창출의 기반을 다지는 본 사업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문갑도시락마을 주민들은 모니터링일 기준('23. 11.) **용역업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소극적 업무 대응으로 인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음**. 문갑도 사업을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의 관리주체가 필요하며**, 관리주체는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더 이상의 지체를 방지하여야 할 것임**. 또한 부득이하게 업체 내 담당자가 교체될 시에는 **전임자와 후임자 간 충분한 인수인계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주민 혼란 및 사기 저하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문갑도시락마을 섬 특성화사업은 **웅진군이 직영으로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웅진군은 지금까지 사업 분야별 전문용역을 발주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해당 용역 업체의 소극적인 업무 대응으로 본래의 사업 계획보다 낮은 진행률을 보이고 있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전문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관리가 지원되어야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마을카페 사업장인 문갑도 여행자센터는 현재('23. 11.) **건물 누수, 주방 설비 파손 등이 발생하여 유지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임**. 하자 재발생으로 인한 사업비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 하에 공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

■ 현장사진



문갑도여행자센터 외부 경관



문갑도여행자센터 내부 경관



여행자센터 카페 설비



마을미래설계 현장포럼 결과물



여행자센터 하자발생 현장



소청도

04. 서해 청정섬 소청마을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면적	22.53km ²
특산물	돌미역, 다시마, 홍어, 홍합, 해삼, 전복		
관광자원	분바위, 스트로마톨라이트, 소청등대, 노화동해변		
접근성	여객선(인천-소청도) 1일 2회 운항, 3시간 30분 소요		

특성화사업 현황¹⁰⁾

사 업 명	서해 청정섬 소청마을		대표사업	해변식당 운영 활성화	
소관부서	옹진군 지역경제과		위탁기관	인천관광공사	
추진단계	1단계 완료	사업기간	'22~23년	사 업 비	5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22)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 사전설명회(2022.05.) : 특성화사업 소개
- 주민설명회(2022.07.) : 추진위원회 설명 및 주민 설문조사 실시
- 마을협동조합¹¹⁾ 간담회(2022.07.) : 법인 설립 및 사업 진행현황 공유
- 마을개발위원회 간담회(2022.07.) : 특성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 부녀회 면담(2022.07.) : 편의시설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
- 어촌계 대표자 면담(2022.08.) : 어촌계 필요사항 의견 청취

• 주민역량강화

- 1차 교육(2022.08.) : 음식점 운영, 회계관리, 서비스 등
- 2차 교육(2022.10.)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등

• 마을법인사업운영

- 해변식당 개업 지원(2022.09.) : 포스기, 커피머신 등 물품 지원

10) 인천관광공사 내부문서 「소청도 도서특성화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참고 및 재구성

11) 소청도 마을협동조합 : 총회를 통한 발기인 모집 및 공고 이후 2019. 08. 24. 설립

■ 모니터링 내용

○ 마을현황진단 및 자산발굴

- 소청도는 백령항로 기항지 중 하나로 백령도와 대청도 방문 관광객이 빈번하게 방문해왔으나, 섬 내에 식당이 전무하여 관광객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이에 소청도 마을 주민들은 “소청도 1호 식당”을 개업하여 체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 소득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음

○ 마을 미래상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 소청도 마을 주민들은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주민 화합으로 발전하는 섬을 만들겠다”는 뚜렷한 미래상을 지니고 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은 인천시·옹진군·인천관광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마을 활성화의 기반을 닦아왔음

○ 마을공동체 구성 및 운영방안

- 주민들은 소청도 마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섬 특성화사업(1단계)을 추진하며 **역량강화교육, 주민조직 간담회 등의 공동체 활동**을 펼쳐왔음. 특히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식음료서비스 교육, 회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식당 개업을 위한 주민 전문성을 키우고자 노력해왔음
- 그 성과로 2022년 9월, 소청도 협동조합은 **섬 내 첫 번째 식당인 “해변식당”**을 개업하였음. 해변식당의 운영으로 직접적인 수익창출과 더불어 신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민박 이용객 증가, 지역 내 소비 증가 등의 파급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이처럼 **해변식당은 소청도의 마을 현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마을공동체 활성화

- 소청도 주민의 90% 이상은 어촌계 회원임. 지역 어르신들을 포함한 주민 모두가 섬 특성화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간담회 등을 추가로 실시**해야 할 것임
- 섬 특성화사업을 통해 마을 발전과 주민 소득 증진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인지시킴으로써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내고 섬 특성화사업 차후 단계의 참여 의지를 북돋아야 함

■ 종합 의견

- 모니터링일('23. 6.) 기준 해변식당은 주방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임. 음식조리, 식재료 관리, 포스기 조작, 홀 서빙 등에 능숙한 인력이 빠르게 확보될 수 있도록 **채용공고의 대외적 홍보가 필요**함
- 해변식당은 소청도 내 유일한 식당이므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하절기뿐만 아니라 **비수기인 동절기에도 관공서, 군인, 주민 등의 이용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그러므로 인력 고용 문제만 해결된다면 앞으로의 마을소득사업인 식당의 유지·확장이 가능할 것임

소청도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해당 섬 주민들은 대부분 생업 종사자이므로 불가능한 일에 가까움. 2023. 05. 02. 인력중개업체를 통해 타 지역 출신 주방장을 고용하였으나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28일 만에 퇴사하였음

- 특성화사업 이전에 설립된 식당의 주요 공간은 **보조주방 내에 배수설비, 환풍설비 등이 없으며 식사 공간과 경사가 높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음**. 그러므로 효율적인 음식 조리 및 서빙을 위해 배수설비와 환풍설비 설치, 바닥 평탄화를 위한 재시공 등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애로사항은 이용자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섬 특성화사업 2단계를 추진하여 공간 개선 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임**

2023. 5.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가스 사용량이 증가했으나, 가스 설비 미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음. 이에 협동조합은 기존에 설치된 가정용 가스설비를 영업용 중저압 가스설비로 교체하였음

■ 현장사진



소청도 협동조합 해변식당 외관



해변식당 현판



물품 지원 현황



해변식당 내부 공간



해변식당 보조주방



소청도 마을 경관



2023년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섬 특성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IV ▶

2단계

주력분야조성 마을 모니터링

1. 옹진군 대연평도
-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2. 옹진군 덕적도
- 으름실 특화작물마을
3. 옹진군 영흥도
- 내동마을 (십리포랜드)
4. 옹진군 영흥도
- 섬나들이 진두마을
5. 강화군 교동도
- 동산리 평화 생태마을
6. 강화군 동검도
- 행복검문소 동검리마을
7. 옹진군 대청도
- 대청 섬마을 지오비즈니스
8. 서구 세어도
-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대연평도

05.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면적	6.26km ²
특산물	농어, 고추, 백색고구마, 꽃게		
관광자원	연평도 안보교육장, 조지역사관, 충민사, 등대공원 등		
접근성	여객선(인천-연평도) 1일 2회 운항, 2시간 소요		

■ 특성화사업 현황

사업명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대표사업	연평베이커리 조성·운영	
소관부서	옹진군 지역경제과		위탁기관	-	
추진단계	2단계 진행	사업기간	'21~23년	사업비	50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21)	• (구)서부리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 사업장(마을 제과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2021.10.~12.)				
2차년도 (2022)	• (구)서부리경로당 리모델링 및 “연평 베이커리” 조성 공사 실시 - 위치 : 연평면 연평중앙로 13번길 25 - 규모 : 지상 2층 133m² (1층 제과점 / 2층 제빵 및 교육공간) - 공사기간 : 2022.03.~06.				
	• 연평 베이커리 시설 보강 - 간판 설치 공사 추진(2022.11.) • 브랜드 개발 및 운영 컨설팅 지원 - 연평면 특성화사업 브랜드 “연평화(연평+평화)” 개발 - “연평화” 및 “연평 베이커리” 브랜드 디자인 개발 - 제과점 운영을 위한 주민 제빵 교육 실시				

■ 모니터링 내용

- 대연평도 특성화사업은 기존의 경로당을 ‘연평베이커리’로 개조하여 대연평도만의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제품생산 및 홍보 방안을 과업·개발하는 등 마을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물리적·경제적·사회적 활성화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

- 구체적으로 주민 소득사업의 일환인 연평베이커리는 연평도의 특산물인 꽃게를 형상화하여 “꽃게 소금빵”을 시그니처 메뉴로 개발하였음. 추후 “연평화제빵소”라는 농인법인의 형태로 상표를 등록할 예정임('23.5. 기준)
- 다만 일부 추진위원의 이탈이 발생하여 생산인력의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자체 해결방안으로 “꽃게모양 빵틀”을 제작하는 등 생산시간 단축 방안을 과업 중임

■ 종합의견

- 대연평도는 2023년 5월 2단계 사업이 종료되므로 「섬 특성화사업(3단계)」 공모 선정을 위한 컨설팅과 세법 및 회계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장사진



연평베이커리 연평화 외관



연평베이커리 제품 과업·개발 과정



연평베이커리 제품



제품개발(제과제빵) 도구

덕적도

06. 으름실 특화작물마을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옹진군 덕적면 북1리	면적	22.53km ²
특산물	표고버섯, 산약초, 산채나물, 단호박		
관광자원	호박회관, 서포리해변, 능동자갈마당		
접근성	여객선(인천-덕적도) 1일 3회 운항, 쾌속선 1시간 10분 차도선 2시간 소요		

특성화사업 현황¹²⁾

사업명	덕적도 북1리 으름실 특화작물마을		대표사업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소관부서	옹진군 지역경제과		위탁기관	인천관광공사	
추진단계	2단계 진행	사업기간	'22~24년	사업비	50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22)

• 사업기반 조성

- 특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2022. 03.)
- 덕적도 관광자원 등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답사(2022.03.~06.)

• 주민소득사업 지원

- 특산물 가공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기관협업 검토 및 주민협의(2022.04.~05.)
- 특산물 가공시설 리모델링 현장 세부점검 및 기관협의(2022.06.)
- 특산물 생산시설 조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협의(2022.06.)
- 표고버섯 생산 재배시설 설계용역 계획 수립(2022.07.)
- 표고버섯 생산 재배시설 설계 착수(2022.08.~10.)
- 표고버섯 생산 재배시설 설계 준공(2022.11.)

• 주민역량강화

- 표고버섯 재배시설 선진지 견학 2회 실시(2022.08.~10.)

12) 인천관광공사 내부문서 「2022 덕적도 북리 도서특성화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참고 및 재구성

■ 모니터링 내용

○ 마을 사업 계획

- 으름실마을은 수산물보다 농산물의 생산량이 많은 곳으로서 **표고버섯을 중심으로 특성화사업을 추진 중임**. 표고버섯의 생산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마을 자원, 현안,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 마을 사업화 지원

- 표고버섯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온도 자동 조절이 가능한 재배시설이 조성되었음**. 사업 운영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와 전기료임. 더위에 취약한 표고버섯을 최상의 상태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12℃ 미만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내부 온도 자동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팜이 조성 지원되었음. 스마트팜은 **열 손실이 적어 전기료 절감이 가능할뿐더러 고령의 주민들이 생육 온도를 조절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이외에도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기본 재료로 배지가 2,000개 이상 지원되었음**, **배지 살균 소독기 등의 설비 지원**이 이루어졌음

○ 마을 사업화 실습

- '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버섯 재배 기술 전문 컨설팅**이 실시되었으며, 현재 본격적으로 버섯 재배에 착수하여 사업을 운영 중임. 다만, 현재 양질의 배지 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 원인으로는 ① **운송과정 중 배지 품질이 저하된다는 점**과 ② **배지 공급량이 적다는 점**이 있음
- 으름실마을은 “섬 지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인 만큼 양질의 배지를 공급받기가 쉽지 않음. 거래 가능한 배지 판매처가 모두 육지에 있기 때문에 배지 주문 후 배송받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며, 운송과정 중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배지 품질은 버섯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배지 운송을 위한 특수 차량을 지원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함**
- 다음으로, 최근 버섯 재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지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이에 으름실마을과 같은 소규모 농장은 배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품질의 배지 확보”가 으름실마을의 가장 큰 현안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마을기업 설립

- 으름실마을은 '12년 설립된 **마을기업 “으름실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산나물 및 표고버섯 재배·판매 사업을 운영해 왔음. 농산물 재배 기술과 기업 운영 노하우가 풍부한 으름실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종합의견

- 으름실마을은 현재 표고버섯 재배에 초점을 맞추어 특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숙박시설 운영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자 함**. 이곳 주민들은 뛰어난 공동체 의식과 사업 역량을 지니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버섯 재배 시설 외에도 추가적인 환경 정비 및 시설 조성이 실시되어야 하므로 **특성화사업 3단계 추진을 통해 인프라 (H/W)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 으름실마을 주민들은 건조 상태의 버섯보다 **생물 상태의 버섯**을 판매하기를 원하고 있음.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만큼 버섯의 품질이 우수하여 상품 가치가 높기 때문임. 그러나 섬 지역 특성상 소비자에게 상품이 배송되기까지 수일이 소요됨에 따라 **유통과정 중 품질 저하 가능성이 높다는 애로사항이 있음**
- 또한 으름실마을은 **전화주문의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향후 버섯 재배량과 상품 주문 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이용하기에 편리한 판매채널**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섬발전지원센터의 주민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연계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으름실마을은 인근에 폐수 처리 시설이 없어 버섯 가공상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생물 또는 건조 상태의 버섯 판매만이 가능함

■ 현장사진



표고버섯 재배단지 전경



표고버섯 재배시설(스마트팜) 내·외부 경관



표고버섯 생육 현황



표고버섯 재배 및 판매를 위한 설비

영흥도

07. 내동마을 (십리포랜드)

■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옹진군 영흥면 내1·2리	면적	17.66km ²
특산물	바지락, 굴, 낙지, 소라, 참게		
관광자원	십리포해수욕장, 농어바위, 내리체험어장 등		
접근성	연도교(영흥대교) 이용, 선재도~영흥도 구간 10분 소요		

■ 특성화사업 현황¹³⁾

사 업 명	영흥도 내동마을 도서특성화사업		대표사업	십리포해수욕장 명소화	
소관부서	옹진군 지역경제과		위탁기관	인천관광공사	
추진단계	2단계 진행	사업기간	'22~24년	사 업 비	35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22)

• 마을 특화 브랜드 개발 및 출원

- 주민 투표를 통한 마을 브랜드 네이밍 선정(2022.06.)
- 브랜드 시안 제작 및 주민 투표를 통한 최종 선정(2022.08.)
- 브랜드 매뉴얼 북 제작 및 브랜드 상표권 출원(2022.12.)

• 홍보 마케팅

- 경관·관광상품 개발(2022.07.~12.) : 특산물판매대 제작, 경관데크 설치, 포토존 설치 등을 통한 마을 홍보 및 관광 명소화 도모
- SNS 홍보 추진(2022.07.~12.) :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을 활용한 '십리포해수욕장' 홍보 추진

• 주민역량강화

- 선진지 견학(2022.11.) : 제주도 세화마을 협동조합-질그랑이 센터, 하례리 생태관광마을 협의체 등 답사

13) 인천관광공사 「2022 영흥도 내동마을 도서특성화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참고 및 재구성

■ 모니터링 내용

○ 마을 사업 계획

- **운영관리 주체**는 십리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특성화 사업 이외의 마을기업과는 상호협력 운영하고 있음
- **사업아이템**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부분수요 및 개선을 통해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2단계)** 공동판매대 운영, 갯벌체험장, 캠핑장, 브랜드개발* 진행

* 기존 브랜드에 대한 객관적 시각화 부족의 한계 극복을 위한 시각적 브랜드/로고 개발을 통해 상품/지역 인지도 제고

- **(3단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정

* 커뮤니티센터 내 카페, 사무(회의) 공간, 공유오피스, 숙박시설 등 배치

* 건물 건축을 위해 웅진군 관광문화과와 부지확보 협의 진행 중

- **사업 아이템의 비즈니스모델 확립**을 통해 체험어장, 캠핑장, 공동판매대를 통해 수입 및 고용창출을 도모함

- **(체험어장)** 연간 수입이 7천만원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2명, 일용직 근로자 20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함

- **(캠핑장)** 연간 수입이 2억원 발생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15명, 일용직 근로자 30~4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냄

- **(공동판매대)** 판매대 근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직접 판매를 원하는 지역민의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직접적 수입으로 기여하였으며, 신선도가 떨어져 판매가 불가할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손실 보증을 지원함

○ 마을 사업화 지원

- **마을 사업화 지원**을 위해 별도의 관리사무소(갯벌체험장 매표소), 판매대 및 캠핑장 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농특산물 보관/판매를 위한 공간을 지원함
- **재료지원 차원**에서는 갯벌체험장은 관련 물품(호미, 장화, 장갑, 통 등)을 지원하고, 캠핑장의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음
- **설비지원 차원**에서 (1) 체험장의 경우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어패류를 씻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고, (2) 판매대의 경우 냉장고, 에어컨, 야외테이블, 파라솔을 지원하였으며, (3) 캠핑장은 전기, 쓰레기 분리수거함, 샤워장 및 개수대 등을 지원함

○ 마을 사업화 실습

- **선진지 현장견학**(제주도)을 실시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갯벌 체험장)을 대상으로 컨설팅하여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함
- **마을사업 지원**을 위해 옹진군에서 특성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진행(주민중심의 지역음식 개발) 및 연 1회 지역노래자랑을 실시하였으며, OBS 찾아가는 라디오 프로그램 및 펜타포트음악축제 홍보 실시함
- **서비스 평가**를 위해 갯벌체험장의 경우 이용자 중심의 상시 피드백 실시(현장사무실, 인터넷 등)하고 있으며, 브랜드/로고 개발 시 주민의견 및 방문객 대상 스티커로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 마을기업 설립

- **마을기업 설립**을 위해 마을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장년회장, 십리포영어조합법인회장 등을 중심으로 발기인을 구성하였음
- **법인형태**로는 ‘십리포영어조합법인’이 있음. 십리포영어조합법인은 유원지관리, 태양광발전, 주차장운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판매업’ 관련 업태를 추가할 예정임
- **법인설립신고**를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고 있으며, 등기소 행정절차에 따른 단계별 포인트를 준수함

■ 종합의견

- 영흥도 내동마을은 **십리포해수욕장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2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3단계 사업을 준비 중**에 있음. 특히, 기존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하여 **사업아이템을 비즈니스모델로 확립**하고 경제적 수익 및 인력고용 창출 효과를 거둠
- 또한, 특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공간, 재료, 설비 차원에서의 다각적 지원이 수행**되었으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평가를 통해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함. 더욱이 **법인 설립을 통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업태 추가지정 노력을 통해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함
- 영흥도 내동마을의 특성화사업 3단계 사업 추진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유사 사례지의 벤치마킹 및 **이용자 트렌드 조사·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현장사진



십리포 특산물 판매장(전면)



십리포 특산물 판매장(후면)



브랜드 개발



야외테이블



캠핑장 편의시설



갯벌체험장

영흥도

08. 섬나들이 진두마을

■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옹진군 영흥면 내5리	면적	26.04km ²
특산물	바지락, 굴, 낙지, 소라, 참게		
관광자원	십리포해수욕장, 농어바위, 내리체험어장 등		
접근성	연도교(영흥대교) 이용, 선재도~영흥도 구간 10분 소요		

■ 특성화사업 현황

사 업 명	섬나들이 진두마을		대표사업	카페 터미널 운영 활성화	
소관부서	옹진군 지역경제과		위탁기관	-	
추진단계	2단계 진행	사업기간	'22~23년	사 업 비	20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22)

• 주민역량강화

- 카페운영 실무교육 운영 : 커피 기초 교육 및 기본 메뉴 실습(6회)
- 카페운영 경영교육 운영 : 위생, 물류 및 CS 교육(4회)

• 주민소득사업 지원

- 영흥면 늘푸른센터 내 마을 카페 리모델링 공사 추진
- 브랜드 “카페 터미널” 개발 및 소포장재 개발 지원
- 마을 카페 “카페 터미널” 개점 및 운영
- “카페 터미널” 시설 보강(간판, 폴딩도어, 어닝 등 설치)

■ 모니터링 내용

○ 마을 사업 계획

- 섬나들이 진두마을은 “바다가 주는 맛을 함께 나누는 진두마을”이라는 비전과 함께 특성화사업 2단계를 추진해 왔음. 진두마을의 대표적인 소득 사업은 마을카페 “카페 터미널”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것임. 카페 터미널은 '22년 6월 개업 이후, 월평균 2,000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약 60%는 주민인 것으로 추정됨
- 본래의 사업 계획으로 내5리 다목적회관에 저온저장고 및 가공기계류를 설치하여 수산물을 가공·상품화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모니터링일('23. 11.) 기준 카페 터미널 운영 사업만이 주민 소득 사업으로 활성화되어 있었음

○ 마을 사업화 지원

- 카페 터미널 운영을 위한 **공간, 재료, 설비 등이 충분히 지원**되었음. 과거 농민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영흥늘푸른센터(영흥터미널)” 내부 공실에 카페 운영을 위한 독립 공간이 조성되었으며, 커피 추출 기계·오븐·냉장고·판매대 등 기본 설비가 설치되었음. 다만, 방문객 수에 비해 규모가 다소 협소하여 **일부 테이블 및 의자가 카페 밖 영흥 터미널 대합실에 배치되어 있는 등 공간 확장이 필요한 상황임**

○ 마을 사업화 실습

- 사업 기간 중 **커피 기초 교육, 기본 메뉴 실습 등의 실무교육(6회)과 위생·물류·CS교육 등의 경영교육(4회)**이 실시되어 카페 터미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음. 특히 영흥도 내 커피 전문가(더존커피랩 이한용 바리스타)의 방문 교육이 실시되어 카페 터미널만의 특색 있는 커피 메뉴가 개발되었음
- 단,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실시된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은 옥수수팝콘을 제조·판매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진두마을 사업내용(카페 운영)과 연관성이 낮아 와닿지 않았다”라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음

○ 마을기업 설립

- 섬나들이 진두마을 특성화사업 추진위원회는 **9명**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두레포츠 영어조합법인**”이 주요 사업장인 카페 터미널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진두레포츠영어조합법인은 '15년 7월 설립된 진두마을의 공동 사업체로서, 경관이 우수한 진두마을 해변을 활용하여 제트보트 등 여가·레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따른 주민 피로도 증가” 등의 사유로 무산된 이후 현재 카페 터미널 운영을 전담하게 되었음

■ 종합의견

- 주민들이 희망하는 진두마을의 미래상은 “**영흥도의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음. 진두(津頭)마을은 영흥로 진입로와 인접한 마을로서 외부 관광객이 영흥도를 방문할 때 가장 처음 마주하게 되는 마을임. 주민들은 “**섬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방문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영흥도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진두마을은 '23년 상반기 섬 특성화사업 차후단계(3단계)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미선정 통보를 받게 되었음.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진두마을만의 특화메뉴를 개발하고자 하는 등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그러므로 공모 미선정의 위기상황을 주민단합의 기회로 전환하여 마을 발전을 이어가도록 해야 함. 즉, **주민들의 의지를 복돋울 수 있는 공공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주민들은 진두마을의 특산물인 바지락을 활용하여 “바지락고추장찌개”라는 특화 메뉴를 개발하고, 밀키트 등으로 상품화하여 마을 공동체의 소득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니고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리·메뉴개발·위생·서비스마인드 등의 전문 교육 및 컨설팅이 지원된다면 진두마을은 “자발적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는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임

■ 현장사진



카페 터미널 외부 경관



카페 터미널 외부 경관





카페 터미널 내부 경관



영흥 터미널 내부 경관

교동도

09. 동산리 평화 생태마을

■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	면적	3.19km ²
특산물	꽃게, 쌀, 화방석 등		
관광자원	교동읍성, 교동제비집, 화개정원, 대룡시장, 난정해바라기정원		
접근성	연도교(교동대교) 및 국도 48호선 이용, 1시간 30분 소요		

■ 특성화사업 현황

사업명	동산리 평화 생태마을		대표사업	연꽃·칠면초 군락지 조성	
소관부서	강화군 해양수산과		위탁기관	-	
추진단계	2단계 완료	사업기간	'21~22년	사업비	30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21)	특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2021.01.~12.)
2차년도 (2022)	- 주민역량강화 - 꽃차 및 꽃청 제조 교육(2022.02.) - 꽃차 및 디저트 제조 교육(2022.06.~08.) - 가평 반딧불 마을 견학 및 과일 코디얼 만들기 체험(2022.07.) - 마을법인설립 교육(2022.12.) - 마을 인프라 조성 -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2022.04.) - 시설공사 착수 및 준공(2022.04.~07.) : 죽산포항 정비(740m²), 꽃밭조성(1,440m²), 칠면초 자생지 조성(500m²)

■ 모니터링 내용

○ 마을 사업 계획

- 동산리 섬 특성화사업은 주민들이 재배한 꽃을 꽃차, 코디얼 등의 특화 상품으로 가공 및 판매함으로써 마을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음. 전문 컨설팅 업체가 수차례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동산리 특산물을 활용하는 비즈니스모델을 확립하였음

○ 마을 사업화 지원

- 꽃차 생산을 위한 꽃밭, 홍보부스 등의 공간이 조성되었으며, 꽃씨 등 재료 지원과 건조기·집게 등 설비 지원이 실시되었음. 그뿐만 아니라, “꽃자람 동산(꽃자라는 동산리의 이야기)”이라는 상품 브랜드가 개발되고 포장 용기 및 상품 설명서가 제작되는 등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졌음

○ 마을 사업화 실습

- 주민들은 3개월간 인근 마을(강화읍)의 꽃차 제조 전문 강사를 마을로 초청하여 꽃차, 꽃청, 디저트, 코디얼 등의 제조 교육을 받았음. 또한 민간 전문가인 “꽃차 소물리에”를 전원 2급 이상 취득함으로써 사업 운영을 위한 자질을 갖추었음. 이처럼 주민들의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 마을기업 설립

- 2단계 사업기간 중 법인 설립도 완료되었음. 총 8명의 발기인(대표 1명, 감사 2명, 이사 5명)이 모여 동산리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으며 현재 10명의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동산리 평화 생태마을은 지금까지 주민 공동체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1·2단계 특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음. 마을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확립, 상품 생산 및 영업 기술 확보, 법인 설립 등의 모든 준비를 끝마쳤음. 그러나 모니터링일 기준('23. 11.) 정식 개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업을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해당 업종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특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홍보부스 공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건물로서 영업 착수를 위한 법적 허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결국 동산리영농조합법인은 먼저 유통판매전문업으로 영업신고 후 당분간 꽃차 유통 사업에 집중하기로 임시방편을 세움. 그러나 법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원재료를 생산하고 가공 및 판매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영업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임. 따라서 인프라 시설(H/W)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3단계 특성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정식 사업장을 조성해야 할 것임

- 사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참여 주민들은 관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민들은 동산리의 대표 관광자원인 죽산포에서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마을의 특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등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

■ 종합의견



꽃차 홍보부스 외부 경관



죽산포항 경관



꽃차 홍보부스 내부 경관



꽃차 홍보부스 내부 경관



꽃밭



꽃자람 브랜드, 포장용기 및 상품 설명서

동검도

10. 행복검문소 동검리마을

■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면적	1.89km ²
특산물	약쑥, 조기, 삼치		
관광자원	동그랑섬, 바다갈대해안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접근성	연도교(동검교) 이용, 강화도~동검도 도보 5분 소요		

■ 특성화사업 현황

사 업 명	행복검문소 동검리마을		대표사업	경관 정비·체험 프로그램 운영	
소관부서	강화군 해양수산과		위탁기관	-	
추진단계	2단계 완료	사업기간	'19~22년	사 업 비	49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19)
~
4차년도
(2022)

- 행복검문소 어촌체험관 조성

- 체험관 1차 증축 및 외벽방수 공사(19. 01.~12.)
- 체험관 2차 증축 및 리모델링(20. 11. ~ 21. 04.)

- 주말장터 운영을 위한 경관정비

- 해안데크 보수(20. 11.)
- 화장실 리모델링 및 쉼터 정비(21. 05.)
- 상수도 내선설비 정비 및 상수관 누수 정비(21. 8.)
- 주변 지역 우수관 설치(21. 10.)
- 동검도 행복검문소 환경정비공사(22. 03.~05.)

- 수산물 판매장 조성

- 수산물 판매장 실시설계 (20. 09.~10.)
- 수산물 판매장 신축공사(20. 11. ~ 21. 04.)

■ 모니터링 내용

○ 마을 사업 계획

- 동검리의 주요 사업 아이템은 “**행복검문소 어촌체험관을 활용한 복합 체험 프로그램 운영**”임. 동검리는 하루 평균 150~2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섬 마을로, 관광객 대상 **마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과 갯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음. 또한 **주말장터**를 개장하여 **수산물 가공 식품을 판매**할 계획이었음

○ 마을 사업화 지원

-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기존 **어촌체험관을 리모델링 및 2층 증축**했으며, 주말장터 운영을 위하여 **판매시설 3개 동 및 어울림마당을 신축**하였음. 또한 관광객 이용을 위한 **화장실, 데크시설, 세족장 등을 정비**하였음. 이처럼 섬 특성화사업 2단계를 통하여 마을 사업화를 위한 공간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졌음. 다만, 모니터링일('23. 10.) 기준 행복검문소 어촌체험관의 **내부공사 및 설비지원**은 미비한 상태로, **체험 프로그램 콘셉트에 어울리는 공간 및 설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해 보임

모니터링일 기준('23. 10.) 행복검문소 어촌체험관은 본래의 목적(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다르게 어촌계 사무실, 마을 펜션 단체이용객의 활동장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 마을 사업화 실습

- 동검리 마을에서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되었음.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체험 프로그램 구성, 일정, 시나리오, 운영조직** 등 세부적인 사업운영계획이 개발되었음
- 고등학생 및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2회 이상 운영되었음. 인천두루미네트워크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험 프로그램 및 홍보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해진 이후부터는 **현재('23. 10.)까지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황**임

○ 마을기업 설립

- 2013년 마을 주민 **18명**을 중심으로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형태의 “**동검도생태체험마을**”이 설립되었으나, **현재('23. 10.) 12명이 탈퇴하여 6명의 구성원만이 소속되어** 있는 상태임. 구성원 탈퇴의 가장 큰 원인은 “**수익창출 부진**”이라고 할 수 있음.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 세무비 등 매년 500만 원 이상의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임. 현재 특성화사업은 **동검어촌계를 중심으로 운영·관리되는 등 핵심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임

추진위원장, 노인회장을 비롯한 중장년층의 주민들은 섬 특성화사업에 대한 지속참여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 외 일부 주민들은 “일회성 교육이 반복될 뿐 실질적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종합의견

- 동검리 마을은 섬 특성화사업을 통해 **행복검문소 어촌체험관, 수산물 판매장, 이용객 쉼터 등의 하드웨어 시설**을 조성하였음. 또한 **마을 스토리텔링 및 갯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소프트웨어 운영체계를 잘 구축해 두었음. 그러나 전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사기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아직까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인력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임**
- 동검리 사업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체험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한 외부인력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외부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사업 운영 역량과 자립성을 함께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함. 어촌체험관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섬 특성화사업이 실제 소득창출로 연계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임

■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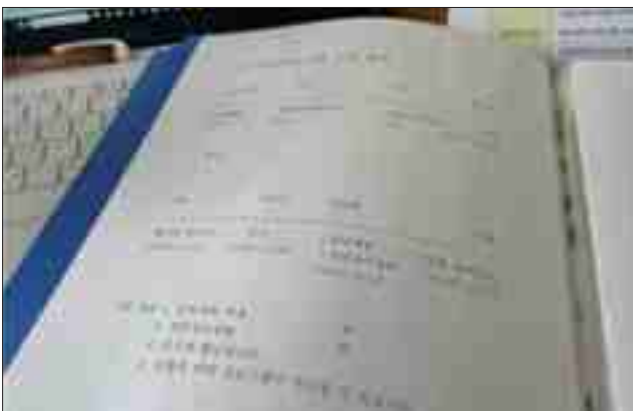
행복검문소 어촌체험관 외부 경관



행복검문소 어촌체험관 내부 경관



수산물 판매장 및 이용객 쉼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

대청도

11. 대청 섬마을 지오비즈니스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옹진군 대청면 대청3리	면적	15.56km ²
특산물	홍어, 우럭, 다시마, 팔랭이		
관광자원	모래사막, 농여해변, 동백나무자생복한지, 서풍받이, 삼각산		
접근성	여객선(인천-대청) 1일 2회 운항, 3시간 30분 소요		

특성화사업 현황

사업명	대청 섬마을 지오비즈니스		대표사업	홍어 가공상품 판매	
소관부서	옹진군 지역경제과		위탁기관	-	
추진단계	2단계 완료	사업기간	'19~22년	사업비	50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19)
~
4차년도
(2022)

• 주민역량강화

- 주민의견 수렴 및 운영주체 간 공감대 형성
- 홍어 가공, 조리, 마케팅 교육 등 역량강화 실시
- * 1차(2019), 2차(2020~2021), 3차(2021~2022), 4차(2022) 교육 운영

• 특성화사업장(대청홍어 저온저장고) 조성

- 위치 : 대청면 대청리 478-84
- 공사기간 : 2020.04. ~ 2020.12.
- 내부시설 : 숙성실, 급랭실, 냉동실, 냉장실 등 (49.9평)

• 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 법인 컨설팅 : 법인형태검토, 설립방법, 법인사업 및 조직구성
- 운영 컨설팅 : 브랜드 개발, 판매전략 구상 등

■ 모니터링 내용

○ 마을사업계획

- 대청도는 오래전부터 홍어의 어획량이 풍부하여 주민들의 생업수단으로 활용되어왔으나, 대청도산 홍어는 대부분 어획 즉시 타 지역(목포 등)으로 판매되어 마을 내수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 이에 따라 대청도에서 어획된 홍어를 저장·가공·판매하는 마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홍어 생산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청도만의 특화 브랜드를 갖추고자 하였음**

○ 마을사업화 지원

- 해당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을 내에 **“대청홍어 저온저장고”**를 조성하였으며 가공 및 판매를 위한 설비들을 설치하였음. 또한 대청홍어만의 BI를 제작하고 건홍어 포장박스 2,000개를 제작·배포하여 대청홍어 일시적 판매를 실시한 바 있음

○ 마을사업화 실습

- 홍어산지로 유명한 전라남도 선진사례 답사활동을 다녀왔으며, 홍어 가공 전문가를 대청도로 연 3회 초청하여 교육하는 등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였음. 대청도산 홍어를 약 15-20일간 숙성하여 상품화해보는 등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홍어 숙성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어민들은 대청도산 홍어를 상품 개발에 활용하기보다 타 지역 가공업체에 즉시 판매하여 **단기적 수익을 창출하기만을 선호**하고 있음
- 즉, 현재 대청도의 마을사업은 홍어의 저장 및 가공 단계보다 생산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특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저온저장고의 활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임. 그러므로 대청도산 홍어가 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저온저장고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탈바꿈되어 **대청도만의 내실 있는 특화상품이 되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함**

○ 마을기업 설립

- 대청도 지오비즈니스 마을 특성화사업 추진위원회는 마을기업 설립(법인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한 후 **어업법인인 “대청홍어”를 설립**하고, **홍어 가공 및 판매업**을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하였음

■ 종합의견

- 3단계 사업에서는 2단계 사업 중 실시된 **지역역량강화교육을 확대하여 홍어 가공 전문 기술인을 고용**하고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기술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을의 자립도를 최대화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저온저장고의 **이용 및 관리 주체를 확정**하고, 주민들의 홍어가공기술과 접목하여 해당 공간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무엇보다도, 미래 수익 예측을 실시하는 등 본 사업의 확장가능성을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저하된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를 재촉구할 필요가 있음.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최근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대청도 삼서(삼각산+서풍받이) 트래킹”과 **홍어를 연계**하는 방안이 있음. 대청도에 삼서 트래킹을 즐기러 온 관광객이 홍어를 시식하고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관련 상품을 패키지화하여 **인천관광공사를 통해 홍보**하는 방안 등을 활용해야 함

■ 현장사진



대청홍어 숙성·가공센터 외관



대청홍어 숙성·가공센터 내부



저온저장고 내부



대청홍어 가공 설비



건홍어 포장박스

세어도

12.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서구 원창동	면적	0.41km ²
특산물	농어, 송어, 망둥이, 새우젓		
관광자원	세어나무 쉼터, 어촌체험마을, 갈대숲, 소나무 군락지		
접근성	행정선(임시선착장-세어도) 1일 1회 운영, 15분 소요		

■ 특성화사업 현황 ¹⁴⁾

사업명	세어도 도서특성화사업		대표사업	야생화 테마 단지 조성	
소관부서	서구 경제정책과		위탁기관	인천관광공사	
추진단계	2단계 완료	사업기간	'19~21년	사업비	50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19)	• 사업기반조성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세어도 관련 자료 조사(2019.10.~12.) - 주민 및 관광객 설문조사 및 의견 분석(2019.10.~12.) - 조경·생태관광·섬해설 등 분야별 전문가 현장 조사(2019.11.~12.) - 섬 정체성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확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2019.12.)				
	• 주민역량강화 - 선진지 견학(홍성군, 태안군 / 1박 2일 / 2019.11.~12.)				
2차년도 (2020)	• 주민소득사업 공간 조성 - 세어도 야생화 Share 숲 및 앞마당 조성(2020.06.) - 세어도 안내판 및 포토존 설치(2020.11.) - 어촌체험종합안내소(Share House) 정비 및 시범운영(2020.11.)				
3차년도 (2021)	• 주민소득사업 운영 지원 - 야생화 숲 관수, 제초 등 유지관리 실시(2021.03.~11.) - 앞마당 Share 대상지 유지관리 및 가구 문패 제작(2021.08.~12.) - 세어도 특화음식, 체험 프로그램, 기념품 개발(2021.03.~12.) - 포토에세이북 제작 및 프로모션 이벤트 실시(2021.12.)				

14) 인천관광공사 내부문서 「서구 세어도 도서특성화사업 2019~2021년도 사업추진 결과보고」 참고 및 재구성

■ 모니터링 내용

○ 마을사업계획

- 세어도 섬 특성화사업은 “세 가지 보물이 어우러진 섬, 세어도”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세어도의 특산물인 “야생화”를 대표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하였으며, 전문 업체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세어도의 지역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음

○ 마을사업화 지원

- 세어도 어촌체험종합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본래의 관광안내소 기능을 되찾도록 하는 **Share House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음. 테이블, 의자, 갤러리용 포스터, 포토존 조형물 등 설치로 관광객 휴식 공간을 조성하였음. 그러나 이후 해당 건물은 「어촌뉴딜300(해양수산부)」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었으며, 야외 공간에 설치된 **포토존 조형물만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음

「어촌뉴딜300(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건물 하자 보수를 위해 출입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상황임(23. 9. 기준)

- 마을 사업을 홍보·마케팅하기 위해 야생화를 테마로 한 **기념품(씨앗연필, 맥문동 텀블러 등) 1,000개를 제작**했으며, **섬 서포터즈 35명을 활용하여 60건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음. 다만, 이후 세어도 선착장 정비로 **관광객의 세어도 방문이 통제**되어 홍보·마케팅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선착장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이후 **일반 관광객의 세어도 출입은 전면 통제**된 상황임

○ 마을사업화 실습

- 1,010㎡ 규모 대상지에 맥문동 등 야생화를 식재하는 **야생화 Share 숲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음. 4개 대상지에 국화, 맥문동 등을 식재하고 3개의 안내판을 설치하였음. 그러나 사업기간 종료 이후 **유지관리 주체의 부재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Share 숲 정비를 시도**하였으나, 도로 확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부 구간이 철거되었음
- 세어도 주택 앞마당에 야생화를 설치하는 **앞마당 Share 사업**이 추진되었음. 총 12개소 앞마당에 야생화 화단을 설치했으며, 지역 내 청년 작가와 협업하여 **가구별 문패**를 제작하였음. 주민들이 Share 앞마당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야생화 관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역량강화교육이 이루어졌음. 또한 **세어도 체험 프로그램 4종**과 트레킹 관광객을 겨냥한 **특화음식(도시락) 5종**의 개발 및 실습이 함께 이루어졌음

○ 마을기업 설립

- 섬 특성화사업 추진 당시, 마을 주민 및 지자체 관계자는 “신규 법인을 운영할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마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구성 조직(어촌계)를 활용**하기로 의사결정하였음
- 모니터링 결과 “어촌계장의 잦은 해임” 등 조직 내부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온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어촌계는 섬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섬 특성화사업을 집중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세어도 특성화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음. “Share House 조성”, “Share 숲 조성”, “체험 프로그램 및 특화음식 개발” 등 일부 사업은 현재 유지관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세어도 주민들의 사업 역량 및 의지와는 무관한 사안임. 앞으로의 마을 발전 방향과 사업 운영 방향을 정비하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함
- 세어도 특성화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 간 갈등 해결**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특성화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법인이 조직**되어야 할 것임

■ 현장사진



야생화 Share 숲 전경



야생화 Share 숲 전경



세어나무 쉼터 포토존



앞마당 Share 문패



일시 중단된 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공사



세어도 포토존



기념품 (맥문동 텀블러)



2023년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섬 특성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V ▶

3단계

확장연계조성 마을 모니터링

1. 용진군 덕적도
 - 농산물의 진리, 진리 단호박 마을
2. 용진군 소이작도
 - 소이작 바다생태마을
3. 용진군 신시모도
 - 삼형제 보물마을
4. 중구 소무의도
 - 춤추는 소무의도



덕적도

13. 진리 단호박 마을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옹진군 덕적면 진리	면적	22.53km ²
특산물	단호박, 표고버섯, 산약초, 산채나물		
관광자원	호박회관, 서포리해변, 능동자갈마당		
접근성	여객선(인천-덕적도) 1일 3회 운항, 쾌속선 1시간 10분 차도선 2시간 소요		

특성화사업 현황 ¹⁵⁾

사업명	덕적 농산물의 진리, 진리 단호박 마을		대표사업	단호박 가공상품 판매	
소관부서	옹진군 지역경제과		위탁기관	인천관광공사	
추진단계	3단계 진행	사업기간	'20~'23년	사업비	2,31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20)	• 사업기반조성 -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 - 덕적도 진리 옹진농협건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2차년도 (2021)	• 단호박 체험 프로그램 6종 개발 및 운영 방안 주민 협의 • 단호박 가공·체험장 및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 - 건축계획 수립 (부지 : 진리 400-3, 舊옹진농협덕적지점) - 舊옹진농협건물 석면 해제 제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3차년도 (2022)	• 단호박 가공·체험장 및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 - 건축계획 수립 (부지 : 진리 400-3, 舊옹진농협덕적지점) - 舊옹진농협건물 석면 해제 제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주민역량강화 - 단호박 제과제빵 주민교육 실시(2022.08.~09.) - 섬 주민 운영위원회 구성 컨설팅(2022.09.~10.) - 6차산업 관련 선진지 견학 실시(2022.10.)				

15) 인천관광공사 내부문서 「덕적도 진리 섬 특성화사업 2020~2022년도 사업추진 결과보고」 참고 및 재구성

■ 모니터링 내용

○ 주민 소득사업 발굴

- 진리 특성화사업은 '17~18년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운영된 “나그네섬, 덕적도”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덕적도는 섬 지역이지만 수산물 생산량보다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곳이므로, 주요 특산물인 단호박을 주민 소득사업의 중심 소재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 구체적으로 진리 주민들은 직접 생산한 단호박을 진리만의 특산품으로 제조·가공한 뒤, 체험 프로그램 등의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마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 산업화”를 실현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단호박 가공·체험장, 재배단지 조성 등 공간·설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체험 프로그램 6종 개발 등의 운영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졌음. 또한 6차산업 선진지 견학, 제과제빵 교육 등 전문 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주민들의 마을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였음

○ 마을 홍보사업 발굴

- 진리 특성화사업은 모니터링일('23. 11.) 기준 구체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단호박 가공·체험장 등 인프라 시설이 최근 준공되어 정식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주민들이 마을 홍보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홍보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종합의견

- 진리 특성화사업은 '17~18년 덕적도 전 권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던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나그네섬, 덕적도)」의 후속사업 성격으로 시작되었음
- 기존 사업의 성과와 주민들의 역량이 (현 체계상) 특성화사업 1·2단계를 완료한 마을의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받아, 본 사업은 1·2단계를 생략하여 3단계 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진리 특성화사업은 인프라 시설(H/W) 조성과 동시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주민 역량강화, 법인 설립 등의 운영 체계(S/W) 구축이 함께 추진하는 등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음

- 진리 특성화사업은 마을의 특산물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가공·판매하고 관광·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판매하겠다는 구체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음. 또한 단호박을 테마로 운영되는 마을카페 “호박회관*”과 연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호박회관은 '17~18년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조성된 덕적도의 마을 카페로서 연간 7,196명('22년 기준)이 방문하는 마을의 대표적인 관광거점시설이 되었음. 단호박라테·식혜·파이 등 특색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음

- 모니터링일('23. 11.) 기준 진리 특성화사업의 가장 큰 현안은 **“협동조합 설립”**과 **“주민 화합”**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진리 주민들은 사업의 운영 주체가 되는 공동체 조직을 구성하고자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나, 참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여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음
- 시범사업 운영 경험 없이 3단계 사업부터 참여하게 된 일부 주민들은 특성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따라서 **마을 법인 설립을 위한 컨설팅**과 함께 **섬 특성화사업 기본 교육**과 **마을 갈등 관리 기법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화합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현장사진



단호박 가공·체험장 외부 경관



단호박 재배단지



단호박 가공·체험장 내부 경관(1층)



단호박 가공·체험장 내부 경관(2층)



단호박·가공 체험장 테라스(2층)



단호박 가공·체험 설비 등

소이작도

14. 소이작 바다생태마을

■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옹진군 자월면 이작2리	면적	17.66km ²
특산물	건조동굴레, 건조고사리, 건어물, 굴, 바지락		
관광자원	손가락바위, 약진넘어해변, 벌안해변, 여행자센터		
접근성	여객선(인천-소이작) 1일 4회 운항, 쾌속선 1시간 차도선 2시간 소요		

■ 특성화사업 현황 ¹⁶⁾

사업명	소이작 바다휴양 체험마을		대표사업	소이작도 관광기반 구축	
소관부서	옹진군 지역경제과		위탁기관	인천관광공사	
추진단계	3단계 완료 ¹⁷⁾	사업기간	'20~23년	사업비	2,31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18)
~
3차년도
(2020)

- 사업기반조성
 - 소이작도 도서특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 주민 선진지 견학 실시 (제주 가파도, 올레여행자센터 / 2018.11.)
-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조성
 - 기본구상 및 조성계획 수립(2019.05.~06.)
 - 기본(디자인) 계획 및 실시설계 실시(2019.07.~11.)
 - 공사 착공(2020.02.) 및 준공(2020.11.)
- 소이작도 경관 개선
 - 기본 디자인 및 실시 설계(2019.04.~08.)
 - 해변길 포토존 설치 및 오브제 설치(2019.09.~12.)
 - 큰말 마을길 1차 경관개선(2019.10.), 2차 경관개선(2020.10.)
- 소이작 갯티길 조성
 - 갯티길 트레킹 코스 선정 및 네이밍 완료(2019.12.)
 - 트레킹 코스 정비 및 안내지도 제작(2020.05.~09.)
- 특산물 발굴 및 상품화
 - 특산물 상품화계획 수립(2019.12.)
 - 상품 포장재 및 시안 개발(2020.03.),
 - 포장재 제작 및 판매 시범운영(2020.05.~07.), 운영개시(2020.11.)

16) 인천관광공사 내부문서 「소이작도 섬 특성화사업 2018~2022 주요사업 추진결과보고」 참고 및 재구성

17) 섬 특성화사업 4단계 공모 선정 완료 및 '23~'24년 추진 예정

주요 사업 추진실적

4차년도 (2021)	•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운영 지원 - 영업신고 지원, 방역관리 물품 지원, 예상지출액 및 수익 분석 등 - 특산물 판매 및 포장재 제작 지원 (등굴레, 고사리, 조릿대 등) - 기념품 제작 지원 (그립톡 6종, 마그넷 2종, 스크레치페이퍼 2종) • 소이작도 경관 개선 - 별안 해변 체험데크 조성(2021.05.~07.) • 주민역량강화 - 꽃차체험 시범운영 교육(2021.06.) 및 기념품 판매 교육(2021.11.) - 마을법인 운영 컨설팅 (영업신고 지원, 자본금 확충 지원 등) • 관광 홍보·마케팅 - 통합 홍보 추진 (청년 마케터 활용, 영상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 - 서포터즈 35명 모집·운영 및 콘텐츠 378건 제작(2021.06.~12.)
5차년도 (2022)	•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운영 지원 - 특산물 판매, 마을카페 운영,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및 컨설팅 - 여행자센터 소유권 보존등기 지원 •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 자료 및 제출서류 준비, 접수, 보완 등 지원 - 인증평점 확보방안 컨설팅 및 건축물 보완 실시설계 • 소이작도 코인세탁소 및 캠핑데크 조성 - 세탁설비 설치 (코인세탁기, 건조기, 멀티자판기 등) - 캠핑데크 설치 (캠핑용 목재데크, 갯벌체험용 세족대 및 샤워시설 등) • 소이작 갯티길 경관개선 및 관광편의 제고 - 갯티길 유도블록 경관개선(페인팅) 및 보행매트 설치(3개 구간) • 기타 주민소득사업 운영 지원 - 소이작도 방송제작 홍보 지원 - 섬 특성화사업 4단계 공모 신청 및 선정

■ 모니터링 내용

○ 주민 소득사업 발굴

- 소이작도 특성화사업은 “**이적(해적)이 찾아낸 보물섬**”을 테마로 관광기반 구축과 주민 소득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펜션을 운영하는 주민 비율이 높다는 마을의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관광객 증대를 위한 본 사업 소재를 선정하게 되었음. 소이작도 특성화사업은 크게 ① **경관개선 사업**과 ② **여행자센터 운영 사업**, 그리고 ③ **특산물 상품화 및 브랜딩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마을 **경관개선 사업**은 관광체계 개선을 위하여 실시되었음. 큰말 마을길 내 소이작도 상징색을 활용한 벽화를 조성하였으며, 섬의 유래 등 마을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 정체성 확립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음. 해변길 곳곳에 **포토존 조형물** 및 **오브제**를 설치하고, **갯티길 코스 5종 개발·이정표 설치·안내지도 제작** 등을 실시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하였음
- 다음으로 **여행자센터 운영 사업**은 소이작 바다생태마을의 대표적인 소득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여행자센터는 **마을 카페 및 특산물 판매장(1층)**과 **다목적 회의실(2층)**로 활용되고 있으며, 3단계 사업 기간 중 여행자센터 운영을 위한 **경영 컨설팅**, **BF 본인증**을 위한 **건축물 보수**, **보존등기 지원** 등이 이루어졌음
- 마을카페에서 **둥굴레라테** 등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와 **마그넷·그립톡** 등 **소이작도 상징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음. 다만, 주말 방문객에 비해 평일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적어 상주 인력 가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평일 방문객 유치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모니터링일(‘23. 5.) 기준, 여행자센터 카페 운영을 담당하는 주민 한 명이 특산품 판매·관리, 코인세탁소 관리 등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추가 인력 보충이 필요한 상황임
- 마지막으로 여행자센터 1층에 **특산물 판매장이 조성되어 있어 소득 창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소이작도 특산물인 **둥굴레, 고사리, 조릿대**를 활용한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특히 마을에서 생산한 **고사리**는 구매 수요가 많으며 구매자 만족도 또한 높은 편임. 그러나 **생산 인력의 고령화로 수매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외에도 코인세탁소 조성 사업이 실시되어 세탁기와 건조기가 각 한 대씩 설치되었음. 본래 소이작도를 방문한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주요 이용객은 펜션을 운영 중인 소이작도 주민인 것이 확인되었음

○ 마을 홍보사업 발굴

- 소이작 바다생태마을 홍보를 위해 「**KBS 6시 내고향(‘22. 11.)**」, 「**SBS 생방송투데이(‘23. 6.)**」 등의 **방송 제작**을 지원하였음. 손가락 바위, 갯티길, 포토존 등 관광자원과 선상낚시체험, 굴따기체험 등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대외 인지도 확산에 기여하였음. 추가로 “**소이작도 섬 서포터즈(‘21. 6.~12.)**” 35명을 모집 및 운영하여 **SNS 활용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였음

■ 종합의견

- 소이작 바다생태마을은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4단계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된 선진사례로서 지금까지 다방면의 영역에서 섬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을 이어왔음. 대이작도~소이작도 간 연도교('27년 개통 예정)가 착공되는 등 향후 인접 섬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추후 관광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 소이작 바다생태마을은 섬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며 양호한 관광수용태세를 갖추게 되었음. 다만,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특성화사업(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시설 유지관리 및 인력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소이작도만의 자립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이외에도 소이작 바다생태마을은 ① 벌안해변 경관데크 내 모래 쌓임 현상 발생, ② 해안 쓰레기 처리 불가 등의 현안사항을 지니고 있음. 이에 인천섬발전지원센터는 소이작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인천 섬 지역상생 캠프('23. 8.)」를 개최하여 인천시 대학생 25명과 경관데크 정돈, 해안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음

■ 현장사진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외부 경관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내부 경관



여행자센터 내 특산물 판매장



포토존 조형물 및 오브제 설치 현장



코인세탁소 내부 경관



관광안내체계



소이작도 기념품



마을 경관개선 현장

신시모도

15. 삼형제 보물마을

■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옹진군 북도면	면적	10.36km ²
특산물	포도, 소금, 맛조개, 바지락, 굴, 천일염 등		
관광자원	수기해수욕장, 배미꾸미 해변·조각공원, 박주기 등		
접근성	여객선(삼목항-신도) 1일 13회 운항, 10분 소요		

■ 특성화사업 현황

사업명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마을		대표사업	소이작도 관광기반 구축	
소관부서	옹진군 관광문화진흥과		위탁기관	인천관광공사	
추진단계	3단계 완료	사업기간	'19~22년	사업비	5,500백만원 ¹⁸⁾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19)
~
4차년도
(2022)

- 마을 사업 운영 법인 설립
 - “협동조합 신시모도” 설립
- 주민역량강화
 - 막걸리 상품개발 및 가공 교육, CS 교육 등 실시
 - 선진지 견학(충남 예산 사과와인 제조 벤치마킹) 실시
 - 막걸리 시식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
- 푸드랩 조성
 - 주요내용 : 카페테리아 및 음식과업 관련 시설 조성
 - 조성위치 : 신도리 679번지 일원
 - 조성규모 : 256.68m² (지상2층)
- 시도초등학교 리모델링 및 문화회관 조성
 - 주요내용 : 폐교리모델링을 통한 문화회관(공동작업소, 다목적강당) 조성 및 배후지 (마을박물관, 산책로 등) 경관 조성
 - 조성위치 : 신도리 679번지 일원
 - 조성규모 : 총 782.82m² (폐교리모델링 263.12m², 증축 519.70m²)

18) 2019~2020년 특성화사업 예산(2,500백만원) 투입 이후 2021~2022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3,000백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추진

■ 모니터링 내용

○ 주민 소득사업 발굴

- 신시모도의 주민 소득사업인 **“삼형제 보물섬 문화광장(이하 ”문화광장“)**은 행정안전부 섬 특성화사업 1~3단계 재원(’17~20년, 25억)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21~22년, 30억)을 결합하여 조성되었음. 마을 내 폐교(舊시도초등학교) 건물을 개조 및 증축하여 **주민 및 관광객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782.82㎡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음
- 문화광장 시설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곳은 **“신시모도 카페(푸드랩)”**임. 신시모도 카페는 **협동조합원 5명**을 중심으로 생산·제조·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월 매출 900만 원**을 꾸준히 달성하는 등 안정적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23.10. 기준)
- 신시모도 카페에서는 **섬 내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으로 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섬의 특산물인 단호박으로 라테·식혜·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음. “단호박 막걸리”를 개발한 바 있으나, 막걸리 상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고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생산이 일시 중단된 상황임
- 이외에도 문화광장에는 신시모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신시모도 박물관”**이 신규 설립되었으며, 2023년 11월 첫째 주 공식적으로 개관할 예정임

-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문화광장을 ① **판매문화광장**, ② **전시문화광장**, ③ **캠핑문화광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을 지니고 있음. 협동조합 신시모도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상인회·부녀회·청년회와 운영 부문을 나누어 사업 운영의 분권화·자립화를 이룰 계획임
- 판매문화광장에서는 신시모도의 특산품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전시문화광장에서는 버스킹 공연 및 디지털 미디어 아트 전시를 운영할 예정임. 또한 캠핑문화광장에서는 체류 관광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마을 홍보사업 발굴

- 신시모도 주민들은 **홍보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 “신시모도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섬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음. 그러나 홍보 메시지 및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노출 빈도수가 낮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이에 따라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민간 대기업들과 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새로운 홍보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종합의견

- 신시모도의 가장 큰 마을 현안은 **“시설 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임. 즉, **섬 특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활용률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문화광장 등 시설들은 공간이 넓고 쾌적하여 적절한 운영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마을을 대표하는 거점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

- 현재 주민들은 마을사업에 대한 강한 참여 의사와 구체화된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초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신시모도의 섬 특성화사업이 지속가능한 마을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장사진



삼형제 박물관 문화광장 외부 경관



삼형제 박물관 문화광장 (舊시도초 리모델링)



신시모도 카페 및 푸드랩 외부 경관



신시모도 카페 및 푸드랩 내부 경관



신시모도 섬마을 박물관 내·외부 경관

소무의도

16. 춤추는 소무의도

■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중구 무의동	면적	0.17km ²
특산물	새우, 우럭, 아귀, 꽃게		
관광자원	소무의도스토리움, 명사의해변, 몽여해변, 장군바위, 부처깨미 등		
접근성	연도교(영종대교-무의대교-소무의인도교) 이용		

■ 특성화사업 현황¹⁹⁾

사업명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		대표사업	소무의스토리움 조성·운영	
소관부서	중구 문화관광과		위탁기관	인천관광공사	
추진단계	3단계 완료	사업기간	'19~'21년	사업비	1,075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19)
~
3차년도
(2021)

- 사업기반조성
 - 주민설명회 및 소무의도 현황조사 실시
 - 사업현황 조사·분석 및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기반조성
 - 주민설명회 및 소무의도 현황조사 실시
 - 사업현황 조사·분석 및 마스터플랜 수립
- 소무의도스토리움(舊섬이야기박물관) 조성 및 운영 지원
 - 섬이야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 수립(2020.11.~12.)
 - 건축물 용도변경, 리모델링 실시설계(2021.02.~04.)
 - 리모델링공사 계획 수립 및 공사 준공(2021.07.~12.)
 - 마을 아카이브 DB구축, 사업백서 디자인 및 제작(2021.04.~12.)
 - 전시 콘텐츠 제작(2021.05.~2021.12.)
- 관광 홍보·마케팅
 - 관광안내소 조성 및 이야기지도(리플렛) 제작(2021.05.~12.)
 - 게이트웨이, 이야기안내판, 조형물(새우·거룻배) 설치(2021.05.~12.)

19) 인천관광공사 내부문서 「소무의도 도서특성화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참고 및 재구성

■ 모니터링 내용

○ 주민 소득사업 발굴

- 소무의도는 예로부터 어장이 풍부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았으나, 1992년 「인천국제공항 설립 공사」 착공 이후로 어획량이 대폭 줄어들어 주민 소득 창출에 큰 타격을 받았음. 이에 주민들은 섬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소무의도의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역사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과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2022년 5월 「소무의도 스토리움」을 개관하였음. 소무의도 스토리움은 현재 월 평균 매출이 **약 600만 원 (순수익 약 100만 원)**으로 주민 소득 창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주민 조직 설립

- 섬 특성화사업 추진 초기에는 **8명**의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 이후 「**소무의도 여행자센터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31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임

○ 시설 운영·관리

- 소무의도 스토리움은 본래 「**섬이야기박물관**」으로 건립된 건물이었으나, 해당 건물은 시설규모(연면적 약 435㎡)가 큰 것에 비해 방문객 수가 현저히 적어 섬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섬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개조하여 **소무의도 스토리움**을 개관하였으며, 주민 의견 및 관광객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공간을 **카페, 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 전시** 등에 활용하고 있음
- 모니터링일('23. 7.) 기준 스토리움은 중구문화재단 주관하에 일부 공간(3층)을 전시갤러리로 개조하고자 했으나,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올해 하반기 공사를 재개할 계획임. 그 외 섬 특성화사업으로 조성된 **건어물 가공저장시설, 게이트웨이, 포토존, 관광안내소, 이야기 안내판** 등은 **운영·관리가 잘 되고 있음**. 그중 **건어물 가공저장시설**은 주민들의 또 다른 소득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무의도 특산물(꽃게, 주꾸미, 낙지 등)의 생산량이 적어 **타 지역의 특산품이 진열·판매되고 있음**

○ 마을 홍보사업

- 섬 특성화사업을 통해 소무의도 안내 **리플릿과 기념품(마그넷, 그림톡, 스크래치 페이퍼)**을 제작하는 등 마을 홍보·마케팅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대한 효과로 최근 **신규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임**

■ 종합의견

- 소무의도는 대무의도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함. 그러나 대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연결하는 교량은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인도교이므로 차량 이용 관광객은 대무의도에 주차한 후 도보로만 진입 가능한 상황임
- 이처럼 소무의도의 현안과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① 인도교(진입로) 초입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거나, ② 인도교를 왕복 운행하는 교통수단 대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음.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섬 특성화사업 차후단계(4단계)에 참여하여 앞의 두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섬발전지원센터는 2023년 하반기 소무의도를 대상으로 “특성화사업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여 소무의도 섬 특성화사업의 차후단계(4단계) 공모를 지원할 수 있음

■ 현장사진



소무의도 스토리움 외부 경관



소무의도 스토리움 내부 경관



홍보리플릿 및 기념품



건어물 판매장 외부 경관



관광안내소



안내판



조형물



게이트웨이 및 포토존



부족한 주차공간



(예시) 인도교 왕복 교통시설



2023년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섬 특성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VI ▶

자립마을 모니터링

1. 옹진군 대이작도
 - 대이작 바다생태마을
2. 옹진군 덕적도
 - 나그네섬, 덕적도
3. 옹진군 장봉도
 -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대이작도

17. 대이작 바다생태마을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옹진군 자월면 이작1·3리	면적	2.57km ²
특산물	콩, 감자, 전복, 해삼		
관광자원	해양생태관, 풀등, 부아산, 섬마을선생 촬영지		
접근성	여객선(인천-대이작) 1일 4회 운항, 쾌속선 1시간 차도선 2시간 소요		

특성화사업 현황²⁰⁾

사 업 명	대이작 바다생태마을		대표사업	해양생태체험관 운영	
소관부서	옹진군 지역경제과		위탁기관	인천관광공사	
추진단계	-	사업기간	'17~18년	사 업 비	50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19)
~
3차년도
(2021)

- 풀등섬 여행상품 개발 및 시범운영
 - 프로그램 2종(풀등탐방, 풀등섬웨딩) 운영 매뉴얼 개발
 - 풀등보전운동 및 풀등섬웨딩 시범운영
- 대이작도 브랜드(BI) 개발 및 홍보물 제작
 - 브랜드명 “풀등섬 대이작도” 선정
 - 브랜드 저작권 및 상표권 출원
 - BI 활용 홈페이지 및 리플렛 35,000부 제작
- 해양생태관 콘텐츠 개발 및 관광 편의 개선
 - 해양생태관 전시관 콘텐츠 정비 및 신규 콘텐츠 도입
 - 풀등 VR 영상 촬영 및 VR 체험공간 조성
 - 야관경관조명 설치, 야외마당 쉼터 조성, 포토존 및 조형물 설치
- 대이작도 축제 “풀등섬 대이작도 여름개장식” 운영
 - 풀등섬 음악제, 샌드아트 전시회, 웨딩(작은언약식) 등 운영
 - 축제 홍보물 제작·배포, 언론 및 방송 홍보 실시
- 주민역량강화
 - 교육·컨설팅 : 재무교육, 친절서비스교육 실시
 - 선진지답사 : 체험 프로그램 운영, 생태자원해설기법 등 학습

20) 인천관광공사 「2017년 옹진군 도서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용역」 참고 및 재구성

■ 모니터링 내용

○ 마을 공동체 운영 현황

- 대이작바다생태마을 사업은 '17~18년 도서특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음. 본 사업은 크게 ① **풀등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② **해양생태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구분되며, **77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 “**사단법인 바다생태마을운영위원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음. 운영위원회는 현재 **매년 2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결산보고 등을 실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의결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음

○ 마을사업 주요현황

- 대이작바다생태마을은 수익 창출보다는 **공익 창출 기여**에 초점을 둔 채 마을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모니터링일('23. 11.) 기준 **풀등섬 체험 프로그램은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해양생태관은 활성화되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음**
- 풀등섬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단된 까닭은 **사업성이 부족했기 때문임**. 대이작도~풀등섬 간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승선정원이 6명 이내여야만 합법적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입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시범사업 운영 당시에는 유류비 등 지원이 있었기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했으나, 사업기간 종료 후 운영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또한 부득이하게 중단하였음. 이러한 **선박 운항 구조가 개선되어야만 프로그램 운영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운영위원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해 왔음

대이작바다생태마을 주민들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의 자연생태경관을 보존하면서도 그가 지닌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고 있음. 즉, 풀등섬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이 지닌 가치를 대외적으로 확산**시키기를 원하였음.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국민신문고, 법제처, 인천해양경찰청 등에 적극적으로 해결안을 문의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 재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

- 다음으로 **대이작도 해양생태관은 연간 18,000~20,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음. 모니터링일('23. 11.) 기준 **주 3회(수·토·일요일)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2명이 상주하여 방문객의 전시 관람을 지원하고 있음**
- 해양생태관은 운영위원회 등 **마을 주민들에 의해 쾌적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음**. 해양생태관 1층에는 등을 체험·관람 가능한 이작생태전시실이 구성되어 있으며, 2층에는 다목적 강당, VR체험공간 등이 구성되어 있음

■ 종합의견

- 마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화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 **대이작 바다생태마을의 가장 큰 자산은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임.** 매월 말일 마을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교류·소통하는 자리를 가지며 참석률 또한 매우 높은 편임. 대이작바다생태마을만의 갈등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9개의 자치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마을 공동체가 발달해 있음. 모니터링일('23. 11.) 기준 대이작바다생태마을은 수익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마을 공동체의 높은 결속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화합한다면 이러한 문제 상황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됨**

■ 현장사진



대이작도 해양생태관 외부경관



이작생태전시실 입구(1F)



이작생태전시실 앞 포토존(1F)



이작생태전시실 내부 경관(1F)





이작생태전시실 내부 경관(1F)



다목적실 경관(2F)

대이작도 홍보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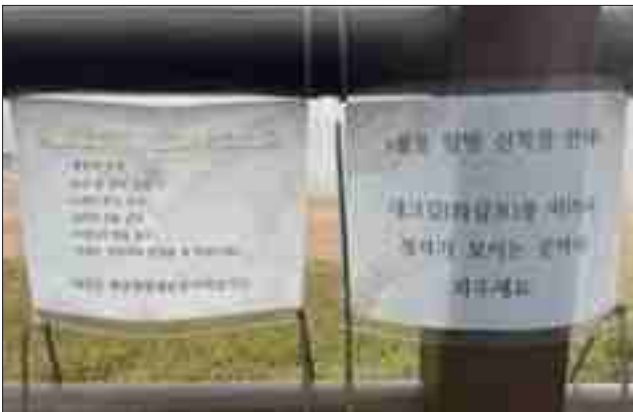
VR체험공간 및 대이작도 사진 전시공간(2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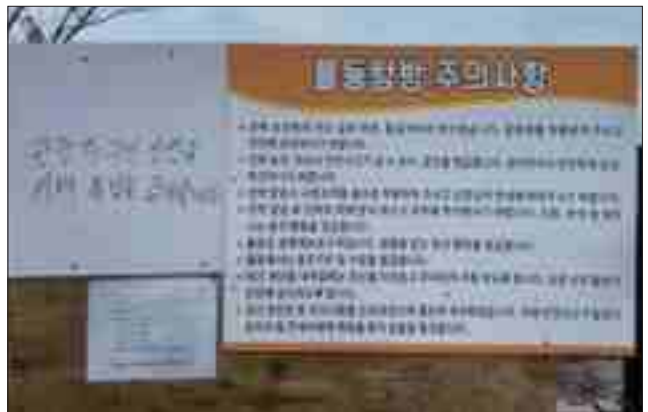
작은풀안 해변 포토존



풀등 탐방 선착장 가는 길



풀등 탐방 선착장 가는 길



풀등 탐방 프로그램 안내표지 (현재 운영 중단)

덕적도

18. 나그네섬, 덕적도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옹진군 덕적면	면적	22.53km ²
특산물	표고버섯, 산약초, 산채나물, 단호박		
관광자원	호박회관, 서포리해변, 능동자갈마당		
접근성	여객선(인천-덕적도) 1일 3회 운항, 쾌속선 1시간 10분 차도선 2시간 소요		

특성화사업 현황²¹⁾

사 업 명	나그네섬, 덕적도		대표사업	바다역시장 및 호박회관 활성화	
소관부서	옹진군 지역경제과		위탁기관	인천관광공사	
추진단계	-	사업기간	'17~18년	사 업 비	50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 덕적바다역시장 환경개선
 - 편의시설 정비 : 그늘막, 쉼터, 수산물 판매대, 냉장·냉동고 설치
 - 바다역시장 동선 조정 및 안내체계 개선
- 덕적바다역시장 활성화
 - 농수산물 상품화 : 상품 패키지 제작 및 농수산물 사진 촬영
 - 브랜드(BI) “북적북적 덕적바다역시장” 개발 및 저작권·상표권 출원
 - 덕적바다역시장 축제 “문화파시” 운영
 - 덕적바다역시장 운영 매뉴얼 제작
- 덕적 호박회관 활성화
 - 6차 산업 컨설팅 : 법인화, 호박회관 조성 관련 컨설팅 지원
 - 안내체계 정비 : 브랜드 개발, 유도 간판 설치, 홍보물 제작
 - 카페 인테리어 : 테이블, 소파, 의자, 각종 설비 및 소품 지원
 - 운영 물품 지원 : 재료 지원, 패키지 개발, 도구 지원
- 주민역량강화 지원
 - 교육·컨설팅 : 친절서비스교육, 상품화교육 등 실시
 - 선진지답사 : 상인조직운영, 마케팅, 공간활용 방법 등 학습

21) 인천관광공사 「2017년 옹진군 도서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용역」 참고 및 재구성

■ 모니터링 내용

○ 마을 공동체 운영 현황

- 나그네섬 사업은 '17~18년 도서특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음. 본 사업으로 출발한 **바다역시장 및 호박회관 사업**은 추진기간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꾸준히 수익창출 활동을 이어오는 등 지속성 및 수익성을 지니고 있음
- 본 사업의 실행주체인 “**덕적도 나그네섬 운영위원회**”는 12명의 운영위원들로 구성되었음. 구체적으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바다역시장 사업 참여 주민과 7개 마을 단호박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호박회관 사업 참여 주민**으로 구성되었음
- 양 조직은 출자 설명회·법인화 코칭·전문가 컨설팅 등의 과정을 거치며, “특성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공동의 참여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음. 이후 “**농업회사법인 호박회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상호 협의 하에 정관 및 규정을 작성하였음
- 그러나 본 사업은 시범적 성격을 지닌 사업인 만큼 추진 도중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음. 그 과정에서 **나그네섬 운영위원회는 다시 바다역시장 사업 참여 주민과 호박회관 사업 참여 주민으로 비공식적으로 분리*되어** 모니터링(’23. 11.) 기준 각각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임. 즉, 현재는 “① **덕적바다역시장 활성화 사업**”과 “② **호박회관 운영 사업**”이 분리 운영되고 있음

덕적바다역시장 활성화 사업의 참여 주민은 “개별 상인의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호박회관 운영 사업의 참여 주민은 “주민 일자리 창출 등 마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견 차이를 보여 왔음

○ 마을사업 주요현황

- 바다역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내 **관광객 쉼터 조성, 수산물 판매대 설치, 시장 안내체계 개선 및 마을 브랜딩, 문화파시(축제) 개최**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음. 그 성과로 바다역시장은 현재(’23. 11.)까지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 바다역시장에서는 **주민들이 덕적도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직접 생산·가공·포장하여 마을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참여 주민은 **월 평균 200~400만 원의 개인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또한 상품 포장 시 “**덕적바다역시장**”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여 마을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다만, 바다역시장 편의 개선 및 경관 정비를 위해 설치된 **그늘막, 윈드배너 등 시설물은 파손의 정도가 심하여 유지·보수 관리가 시급한 상황임**

바다역시장은 운영 주체인 마을 어르신들이 평일 5일 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주말 2일만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음(’23. 11. 기준)

- 다음으로 호박회관 운영을 위해 **舊진리노인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음료 및 다과 제조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충분한 공간 조성 지원이 이루어졌음. 카페운영에 필요한 **도구 및 재료지원,**

홍보물 제작, 안내체계 개선 등이 실시되었음. 또한 주민들이 덕적도 특산물인 단호박을 활용해 라테·식혜·파이 등의 대표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도록 충분한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였음

- 그 결과 호박회관은 **연간 7,196명('22년 기준)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관광거점시설이 되어 단순 마을카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 '18년 5월 개업 이후 **꾸준한 매출액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바일 APP을 활용해 이용객 후기를 관리하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음

■ 종합의견

- 덕적도 나그네섬 특성화사업은 덕적바다역시장과 호박회관을 중심으로 원활한 주민소득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다만, 각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주체가 분리되어 “호박회관 내 바다역시장 상품 위탁·판매” 외에는 양 주체 간 특별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두 사업을 아우르는 **“나그네섬 운영위원회”의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동일 및 인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덕적도 진리 특성화사업”, “덕적도 으뜸실마을(북1리) 특성화사업”, “문갑도 도시락마을 특성화사업” 등과 연계한다면 사업 장기 존속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현장사진



호박회관 외부 경관



호박회관 안내 체계



호박회관 내부 경관



호박회관 내 특산물 등 판매장



덕적바다역시장 경관



덕적바다역시장 특산물 판매 현장



덕적바다역시장 특산물 판매 현장

장봉도

19.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섬 일반 현황

행정구역	옹진군 북도면 장봉1~4리	면적	7.15km ²
특산물	김, 꽃게, 낙지, 단호박, 포도		
관광자원	무장애숲길, 웅암해변, 진촌해변, 야달해변, 작은멀곳, 대빈창 등		
접근성	여객선(삼목항-장봉도) 1일 13회 운항, 30분 소요		

특성화사업 현황²²⁾

사 업 명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대표사업	트레킹 특화 사업 개발	
소관부서	옹진군 지역경제과		위탁기관	인천관광공사	
추진단계	-	사업기간	'17~18년	사 업 비	500백만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

- | | |
|---------------------------------------|---|
| 1차년도
(2017)
~
2차년도
(20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봉도 트레킹 7코스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레킹코스 개발 : 핵심 콘텐츠 발굴 및 트레킹 안내지도 제작 트레킹코스 환경 디자인 : 안내체계 및 트레킹리본 설치 스탬프투어 운영 : 스탬프포스트 7개소 설치, 리플렛 및 기념품 제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봉도 트레킹 7코스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레킹코스 개발 : 핵심 콘텐츠 발굴 및 트레킹 안내지도 제작 트레킹코스 환경 디자인 : 안내체계 및 트레킹리본 설치 스탬프투어 운영 : 스탬프포스트 7개소 설치, 리플렛 및 기념품 제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봉도 브랜드(BI) 개발 및 홍보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랜드명 “건다보면 트레킹천국 장봉도” 선정 브랜드 저작권 및 상표권 출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컨설팅 : 체험프로그램 개발, 재무, 커피교육 등 실시 선진지답사 : 트레킹센터 및 트레킹코스 등 학습 |

22) 인천관광공사 「2017년 옹진군 도서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용역」 참고 및 재구성

■ 모니터링 내용

○ 마을 공동체 운영 현황

-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사업은 '17~18년 도서특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음. 장봉도 마을협동조합은 모니터링일('23. 6.) 기준 **대표·이사 9명, 상주 직원 2명, 회원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2년 운영수익의 일부를 장봉1~4리에 각각 50만 원씩 기부하는 등 **조합운영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도록 기여하고 있음**

○ 마을사업 주요현황

- 여행자센터 내 **카페 운영, 기념품 판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수기인 5~9월은 월평균 매출액이 약 1,100만 원으로 안정적인 편임
- 협동조합은 올해 초 사업 부지를 기존보다 확장하여 재임대하였으며, 추후 해당 부지를 **마을 장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해당 부지가 단순 마을시장으로 활용되기보다는 **“특산품을 외부 관광객에게 알리고 섬 주민들과 관광객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섬발전지원센터는 장봉도 마을협동조합이 정기적인 섬 축제·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축제·이벤트 분야의 컨설팅 및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 또한 협동조합은 주민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어패류를 모빌·열쇠고리·목걸이 등의 공예품으로 DIY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4월부터 장봉해림원과 협력하여 “지적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을 10회 이상 진행하였음. 최근 장봉초등학교와 섬 내 펜션으로부터 위의 체험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사업화하여 초등학생 및 관광객 체험활동으로 연계 운영하자는 제안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나, 협동조합은 강사진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의 확장을 주저하고 있음. 위 프로그램이 협동조합의 수익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을 주민 대상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육성**해야 할 것임
- 경관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옹암해변 무대, 선착장 일대, 해안탐방로** 등이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음**. 다만, 역사·문화재 복원 및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복원된 “곶배” 일대는 **곶배의 설명문이 담긴 안내판이 미비하여 재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 스탬프투어 또한 **20여 개의 스탬프 포스트 중 대다수의 도장이 사라지거나 망가진 상황임**. 스탬프 책자의 추가 제작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스탬프를 모두 모은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보상이 없어 일부 관광객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음. 스탬프투어 관광객의 참여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스탬프투어 책자 추가 제작, 스탬프 포스트 수리, 보상방안 마련** 등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고, 마을협동조합 및 주민 소득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함. 또한 **웅진군에서 실시하는 「웅진군 섬 스탬프투어 운영 및 홍보 용역」과 연계, ICT 기술을 활용**하여 스탬프 책자를 추가로 제작하지 않고서도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참여 가능한 사업을 운영해야 함. 이로써 경제적·친환경적인 장봉도만의 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종합의견

- 장봉도 마을협동조합은 카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념품 판매 등을 추진 중임. **체험 프로그램**은 갯벌에서 생산된 어패류를 공예품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개인 관광객뿐 아니라 단체 및 기관의 수요가 높은 편임**. 장봉도는 어장이 풍부한 섬으로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주민소득사업을 확장해 나가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마을협동조합의 중심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해야 함
- 또한 장봉도는 섬의 상징인 언어를 활용하여 기념품(마그네틱, 열쇠고리 등)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음. 그러나 디자인이 단조롭고 상품마다 사용된 언어 캐릭터가 달라 판매율이 저조함. 그러므로 **장봉도를 대표하는 BI(Brand Image)를 제작하고, 해당 BI를 활용한 통일감 있는 기념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장봉도만의 지역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장사진



여행자센터 외부 경관



여행자센터 내부 공간



기념품 판매대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장



옹암해변 경관 (조형물, 전망데크, 캠핑데크)



옹암해변 인근 무대



우장애숲길 스탬프 포인트



건어장 인근 둘레길



복원된 곳배



2023년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섬 특성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참고자료 ▶

전문가 의견



교동도 01 | 난곶마을

- 유희부지를 이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은 좋으나 해바라기 사업은 1년 사업으로 투입 인력 대비 한 달간의 운영 기간은 너무 짧으며 전국에 해바라기 축제 하는 곳이 이미 많이 있음. 서울에서 가까운 파주에도 해바라기 축제가 있음. 그러므로 해바라기 정원 사업만으로는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됨. 해바라기를 이용한 특화 브랜드 개발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해바라기 정원과 연계하여 대룡리 시장 및 교동 망향대 관광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이 지역은 주중에는 관광객이 거의 없으며 주말에는 관광객이 집중되어 있음.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관광버스는 대룡시장에 들렀다가 외포리의 식당으로 향함. 그러므로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등의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주문도 02 | 살고 싶은 갯벌 섬마을

- 2020년 기준 주문도 땅콩 생산량은 42,200Kg 정도로, 주문도 300가구 중 절반이 땅콩을 생산하고 있음. 땅콩 막걸리 제조·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류사업은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주류세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폐업하는 법인들이 많음. 따라서 전통주 및 주류업 사업 진행 시 주류세 및 제조 인허가와 관련한 정보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6년 아차도~불음도~주문도를 잇는 연도교가 착공될 예정임. 연도교가 착공되면서 관광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아이템 선정에 대한 지역주민 간 타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땅콩 막걸리 외에도 땅콩 가공식품이나 글램핑장 조성, 마을 축제 등의 사업 아이템 변경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문갑도 03 | 문갑 도시락마을

- 문갑도는 현재 덕적도발 선박으로만 방문이 가능한 섬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그러나 2025년 이후부터는 문갑도를 직항하는 선박이 운항할 예정이므로 본 사업은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문갑도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모색하려는 지역임
- 여행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카페 운영을 할 경우, 이 지역의 특별한 샌드커피(모래의 뜨거운 열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커피)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면 커피만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섬이 될 수 있으며 사업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음

소청도 04 | 서해 청정섬 소청마을

- 인천시 예비 마을 기업으로 식당 운영 및 서비스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 곳임. 현재는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타 지역의 중식 요리 전문가가 소청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들어오면서 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구두 계약을 맺은 상태임
- 12월 18일 백령도~대청도~소청도를 운항하는 차도선(푸른나래호)이 첫 출항할 예정임. 소청도는 접근성이 낮아 관광객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차도선이 운항하면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므로 소청도만의 관광자원인 소청도등대, 분바위 등의 방문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소청도 내 유일한 식당인 해변식당이 활성화되면 주민들의 원활한 소득 창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대연평도 05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 마을 전체의 명확한 비전과 콘셉트 설정이 필요함
 -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이라는 현재의 사업명과 대표사업 간의 연계성이 미흡함. “평화의 섬”에서 의미하는 평화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이 필요함. “안보”, “평화”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하고 이를 문화예술, 경관, 생태, 체험 등의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함. 대표사업도 이러한 마을 콘셉트와 부합해야 마을의 정체성이 확립됨
- 대표사업인 ‘연평베이커리’의 상징화, 브랜드화 구축이 필요함
 - 베이커리카페는 소규모 예산으로 지역이미지, 홍보, 소득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임. 하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심하며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기도 함
 - 베이커리카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을만의 특색 있는 음료와 빵이 있어야 하고 이를 스토리텔링화해야 함.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이 과업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임. 현재 추진 중인 ‘꽃게 소금빵’ 만으로는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확립하고 소득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연평베이커리카페”만의 시그니처 음료와 이색적인 제빵 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무엇보다도 ‘연평베이커리카페’가 상징화되어야 함

- 시그니처 음료 및 제빵 개발, 옥상을 활용한 루프탑 전망카페 운영, 카페 외관의 이색 벽화 구현, 바리스타의 이색화(예시-통영 옥쟁이 할머니 바리스타) 등이 있음
- 주민들의 음료와 빵 제조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함
 - 카페 및 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바리스타 및 베이커리 실습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음료제작, 서비스마인드 등 마을 바리스타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섬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임
- 카페와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평화”를 주제로 이색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음
 - 마을의 평화 이야기와 관련된 다목적 포토 조형물을 도입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마을 이미지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적인 화제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시) 평화와 사랑의 벤치

-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했던 벤치에 평화와 사랑을 테마로 한 아이디어 요소를 가미하여 특별한 사랑의 추억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재창조함 (참고사례 : 덕평 휴게소의 러브벤치 등)

- 섬 특성화사업(3단계) 공모사업 지원
 - 연평베이커리 사업 등 대연평도 특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섬 특성화사업(3단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섬 특성화사업(3단계) 선정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아울러, 3단계 사업에 선정되면 역량강화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연평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홍보마케팅 강화 필요
 -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카페 이름을 활용한 스토리북을 제작하는 것도 필요함. 인천관광공사와 연계로 통한 적극적 홍보를 해야 하며 지역대학과의 서포터즈 협약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덕적도 06 | 으뜸실 특화작물마을

- 사업의 핵심 관건인 고품질 배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으뜸실마을은 전반적으로 마을에서 수립한 계획에 맞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지가 높음. 하지만, 마을 사업의 핵심인 ‘고품질 배지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요구됨
-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함
 - 버섯 재배 시설 외에도 추가적인 시설 도입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섬 특성화사업 3단계’ 지원이 요구됨. 다만, 3단계 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버섯재배가 마을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홍보마케팅 강화에 대한 사업 제안도 필요함
- 건강, 웰빙(Well-being) 등을 테마로 마을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함
 - 표고버섯, 해풍산행 등 섬이 지닌 청정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심신건강 치유기능을 강조하고 자연생태체험, 삼림욕 등 건강지향적인 마을 브랜드를 구축해야 함

※ (예시) 해풍 맞은 표고버섯 생산과 체험이 결합한 건강체험마을

- 표고버섯, 산나물 등을 생산시설 개선 및 생산시설 증대 사업 추진
- 마을 건강 이미지를 반영한 음식 및 특산물 개발
- 버섯, 약초, 음식, 체험 등이 결합된 건강 체험상품 개발
- 덕적도 해수욕장과 연계한 건강체험 프로그램 개발

- 으름실마을 스토리텔링화가 필요함(해풍버섯을 마을의 대표 브랜드로 활용)
 - 전문가 인터뷰 및 향토사료 검토를 통한 으름실 마을과 관련 스토리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구성·개발 및 대표 스토리 선정을 통해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으름실 마을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방문객의 휴식시설인 벤치, 파고라 등을 테마화하여 화제성과 흥미를 강화하고, 방문객들이 마을을 배경으로 자기 사진(셀피, Selfie)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셀프카메라 전용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해풍버섯 상품화 및 관광자원화
 - 마을 주민의 주소득원으로서 버섯을 활용 및 상품화하기 위해 재배단지 조성, 관광객 체험 및 편의시설, 매장 등의 도입을 추진해야 함. 해풍버섯을 테마로 마을축제를 개최하면 인지도 제고 및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해풍버섯 상품화를 위해 생산과 공급에 있어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식·체험·판매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해풍버섯과 관련해 스토리를 발굴하여 포장지 등에 수록하여 활용할 수 있음. 해풍버섯을 활용한 다양한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관광객들에게 마을 상품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

영향도

07

내동마을 (심리포랜드)

- 내동마을은 주민들 간의 협력 및 강한 추진의지를 보유하고 있음
 - 심리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 간의 협력과 추진의지가 강한 것이 인상적임. 아울러,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마을이 지닌 아름다운 경관과 노을을 콘셉트로 한 비전 설정 필요함
 - 마을의 경관적 아름다움, 자원적 특성 및 마을 환경 등을 반영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이색적인 체험을 만끽하는 노을마을”을 비전으로 설정함

※ 발전방향

- 낙조가 아름답고 이국적인 분위기의 감성형 마을
- 바다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해양체험형 마을
-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만끽하는 재미있는 마을
- 사진 찍기 좋은 공간, 캠핑하기 좋은 마을

- 낙조 등 마을의 감성을 활용한 길 조성이 필요함
 - 감상적 도보 보행길을 조성하고 포토존, 공원 등을 이색화하여 연계할 수 있음. LED를 이용한 야간경관 연출, 여름철 야간 걷기, 소원빌기, 시낭송, 사진찍기 등 감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음(예시-제주 중문 달빛걷기)
- 섬과 마을주민들의 명물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함
 - 마을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자질과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을에 부합하는 맞춤형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발굴·추진하고 선진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함
 - 내동마을은 십리포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관광마을 개념에서 교육을 접근해야 함

※ (예시) 교육방향

- 바리스타 직무 교육
 - 바리스타 교육 : 커피 에스프레소 추출, 메뉴 및 라테아트 제조
 - 위생관리 : 휴게음식점업 위생관리, 식중독 및 개인 위생
 - 매장운영 : 매장 영업 준비 및 점검, P/L관리 및 운영 , 구매 및 저장
 - 서비스 마인드 : 서비스 마인드 및 서비스 절차
- 실무 역량 교육
 - 커뮤니케이션 실무 : 커뮤니케이션 기법, 서비스 마인드 교육, 이미지 메이킹, 소외계층 및 장애인 응대
 - 컴퓨터 활용 : 컴퓨터와 정보검색, SNS 활용, 유튜브 활용
 -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 안전교육 실무, 응급상황 대응요령
- 마을 홍보마케팅 강화가 필요함
 -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마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을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스토리북을 제작해야 함
 - 인천관광공사와 연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대학과의 서포터즈 협약도 필요할 듯함

영향도

08

섬나들이 진두마을

※ 발전방향

- 카페와 연계한 특색 있는 테마형 감성마을
 - 이국적 분위기, 젊은 트렌드를 반영한 카페 이미지 구축
 - 모두에게 추억을 선사하는 낭만과 사랑이 있는 러브마크 조성
 -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자아낼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
 - 다양한 색채와 향기를 지닌 자연친화형 감성마을
 - 진두마을과 관련된 꽃과 허브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 꽃과 허브를 활용한 축제 및 이벤트 개최
 - 카페와 자연 경관을 연계한 이색적인 관광상품 개발
 - 마을의 이야기와 문화예술이 결합된 콘텐츠형 감성마을
 - 마을을 상징하고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 도입
 - 음악, 영화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야간 관광상품 개발
 - 가공시설 등 시설과 체험이 결합된 문화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 카페의 명물화, 상징화로 마을 이미지 구축 및 소득 확대가 필요함
 - 카페의 이색적인 바리스타와 메뉴를 도입하여 마을의 명물로 화제성을 자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커피에 꽃말 새겨주기, 손님 기분에 맞게 꽃차 준비하기 등
 - 카페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화된 음료 메뉴 개발
 - 마을 내 특산물(임산물 등)을 소재로 커피 메뉴 개발 및 판매(예시-소이작도 둥굴레 라테, 나전역 곤드레 라테)
 - 메뉴에 지역 스토리를 반영하여 장소에 상징성을 부여해야 함
 - 라테 아트를 활용한 ‘꽃 커피’, ‘감성 커피’ 메뉴 개발 및 판매
 - 주민 바리스타를 대상으로 라테 아트 교육 실시
 - 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음료로 네이밍을 조정해야 함
 - 기존 음료에 마을의 지명으로 넣어 공간 및 메뉴의 정체성 확보(예시-진두바다를 행복바다로 명칭하고 이와 관련해 행복 레모네이드, 행복 핑크 레모네이드 등 메뉴 개발)
- ※ (참고사례)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에는 ‘제주 유기농 당근 주스’, ‘제주 레몬티’, ‘제주 바다 레모네이드’ 등 제주를 상징하는 음료를 판매 중임
- 먹거리 기념품을 확대 개발해야 함

- 단순 매장 판매용 베이커리 3종(살레케이크, 새우크림빵, 감자빵)의 소규모 제빵에서 확대된 진두마을 만의 먹거리 기념품으로 확대 개발
- 관광객들이 손쉽게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용으로 개발
- 진두 '사랑의 마카롱' 개발·판매할 수 있음
 - 진두마을 및 인근마을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마카롱을 만들어 카페에서 판매하도록 함
 - 스토리텔링화하고 포장지를 이색적으로 제작하여 마을의 상품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마을의 명물로 자리 잡도록 함
- 마을 바리스타 육성을 통한 명물화가 필요함
 - 마을에 조성되는 카페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바리스타를 지역주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함(예시-통영 옥쟁이 할머니 바리스타). 이색적인 복장이나 이색적인 라테 아트를 활용하여 화제성을 강화함
 - 라테 아트를 활용해 커피, 차 메뉴에 지역 스토리, 꽃 스토리를 반영하여 장소의 상징성 부여, 주민 바리스타를 대상으로 라테 아트 교육 실시, 커피에 꽃말 새겨주기, 손님 기분에 맞게 꽃차 준비하기 등
 - 카페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화된 음료 메뉴를 개발해야 함
 - 마을 내 특산물(임산물 등)을 소재로 커피 메뉴 개발 및 판매(예시-소이작도 둥굴레 라테, 나전역 곤드레 라테)
- 카페 운영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마을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자질과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을에 부합하는 맞춤형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발굴·추진하고 선진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함. 주민주도형 카페(커피숍)을 운영하고 가공공장 등이 들어서 관광체험과 연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예시) 교육방향

- 바리스타 직무 역량 : 커피 에스프레소 추출, 메뉴 및 라테아트 제조
- 위생관리 : 휴게음식점업 위생관리, 식중독 및 개인 위생
- 매장운영 : 매장 영업 준비 및 점검, P/L관리 및 운영, 구매 및 저장
- 서비스 마인드 : 서비스 마인드 및 서비스 절차

교동도 09 | 동산리 평화 생태마을

- 마을 사업 계획, 마을 사업화 지원, 마을 사업화 실습, 마을 기업설립 등은 잘 추진되고 있으나, 개업을 위한 영업 신고를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즉석 판매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유통판매전문업으로 영업신고하여 꽃차를 유통하고 실정인 바, 강화군과 교동면 등 관계기관에 동산리영농조합원이 민원을 제기하여 합리적인 해결책 구안하여 동산리 특화상품인 꽃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동검도 10 | 행복검문소 동검리마을

-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 동검도 행복검문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동검도 행복검문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을기업 ‘동검도생태체험마을’ 재정비하고 관련 환경단체, 어촌계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가 조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대청도 11 | 대청 섬마을 지오비즈니스

- 대청도의 특산물인 참홍어를 브랜드화한 마을사업계획이 돋보이며, 기업 사업지원을 위한 ‘대청홍어 저온저장고 설치’, ‘대청홍어 BI 제작’ 등이 긍정적임
- 마을 기업으로 어업법인 ‘대청홍어’를 설립하고 홍어 가공 및 판매를 통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좀 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홍어 가공 및 판매를 위한 ‘대청도 홍어잡이 어민협의체’ 등이 구성되어야 할 것임

세어도 12 |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 세어도 환경에 잘 자라는 야생화를 선정하고 다른 야생화 단지와 차별성이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어촌뉴딜 300사업 등으로 관광객들의 세어도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황이지만, 마을주민로 구성된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진을 새롭게 조직하여 심기일전하기를 바람. 야생화 천국의 섬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시 관내 풍도를 견학하여 우수한 사례를 세어도에 실정에 맞게 적용해 볼 것을 추천함

덕적도 13 | 진리 단호박 마을

- 덕적도 진리의 특성화사업의 중심소재로 단호박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덕적도는 굴업도 핵폐기장건설논란부터 골프장건설논란, 바닷모래채취 등 다양한 갈등이 있었고 주민 간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상황임. 서로의 의견을 잘 듣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의 회의 진행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임
- 이를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 갈등관리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상대적으로 젊은 귀향하는 주민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이 특성화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또 덕적도 진리는 면사무소가 위치한 마을로 행정의 역할도 중요함
- 또한 관광객들이 단순 구매를 넘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특히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인천앞바다의 섬을 알릴 수 있도록 직접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올해 “섬으로가는 바다학교(대이작도, 승봉도, 덕적도/소야도, 장봉도)”를 추진했는데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없음을 아쉬워했음
- 특히 마을카페 “호박회관”이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음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방문객센터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덕적도 지도, 사진 등 덕적도와 소야도, 주변 섬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정보습득가능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소이작도 14 | 소이작 바다생태마을

- 소이작도는 특성화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지역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마무리되기를 바람. 향후 소이작도의 대이작도와 연도교 설치계획도 있는 상황으로 대이작도와의 협력이 중요함. 풀등, 바다 등 비롯한 자원을 대이작도와 함께 공유하는 상황이고 체류형, 체험형 숙박으로 꾸준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각 섬으로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협력할 필요가 있음. 소이작도에 왔던 사람들이 대이작도에도 방문하고, 대이작도에 왔던 관광객들이 소이작도도 찾을 수 있도록 상호협력이 필요함
- 특히 해적섬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자문과 판단이 필요함. 참고로 왜구가 출몰하기 전인 고려시대에도 이미 ‘이죽도’라고 불림. 역사학자와 언어학자 등은 이작도의 명칭이 왜구와의 연관성이 적을 것이라 하고 있음. ‘하트모양’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이작도와 마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판단함
- 또 인근의 선갑도와 선단여 등 황해의 여신인 망구할매설화와 고목나무도령이야기를 바탕으로 역사문화, 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섬마을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역사문화, 자연생태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조사과업과 가치발굴, 자원화과정이 필요함

신시모도 15 | 삼형제 보물마을

- 신시모도는 현재 연륙교 건설 공사 중으로 2024년에는 임시 개통할 것으로 보임.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한 상황임. 다리건설 이후 좁은 도로로 인한 혼잡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마을길 정비와 함께 안전한 걷는 길 확보와 함께 삼형제섬만의 주민과 관광객 수칙 등 제정도 추진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섬 특성화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더 긍정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 신시모도는 원주민과 이주민들 사이에 신뢰와 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 섬이 급속하게 개방되면서 외부에 의한 변화로 인해 섬 공동체가 붕괴된 사례가 적지 않음. 신시모도가 ‘의좋은 삼형제’처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들의 협력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 잠깐 들렀다 가는 섬이 아닌 머물다 갈 수 있는 섬으로 체류형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 특히 우수한 갯벌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활용도 되고 있지 못함. 신도구봉산의 임도와 갯티길 등 우수한 관광자원이 있는데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소무의도 16 | 춤추는 소무의도

- 소무의도는 무의대교와 인도교연결로 접근성이 우수함. 또한 전형적인 섬마을의 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팔미도와 송도신도시, 인천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자원이 우수한 섬임. 차 없이 걷기 좋은 섬으로 이미지 브랜드화하고 마을안길을 정비하고 중앙에 위치한 교회를 중심으로 우물, 돌담 등 동쪽마을과 서쪽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추가사업이 필요한 상황임. 그리고 바닷가주변으로 무질서하게 적치된 물품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함.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하수도정비임. 마을입구부터 카페와 식당에서까지 악취가 발생하고 있음. 특성화사업과 별도라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 공영주차장이 멀어서 관광객들도 적지 않게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건너편 광명항까지의 대중교통(버스) 확대 등 연결성 개선이 필요함. 또 마을주민노령화로 인도교이용의 어려움이 있어 인도교이동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섬해양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마을조례제정과 관광객수칙제정안내 등 필요함. 대부분의 관광객이 낚시객과 중년층이 대부분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먹거리, 볼거리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무의도의 폐교를 활용하여 에코오션스쿨을 준비하고 있음. 섬마을에 대한 학생들 교육의 장으로 교육청, 중구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음

대이작도 17 | 대이작 바다생태마을

- 마을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민 참여가 필수적임. 해양생태관은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지속적인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으로 새로운 콘텐츠 제시가 필요함. “해양생태관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이루어졌는가”와 “타 지역 생태관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외부 생태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방문객들의 생태 체험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풀등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법적근거와 사업 타당성 파악이 미흡함에 따른 사업 중단은 본래의 사업 취지를 훼손한 사례임. 대이작도 풀등섬 체험 프로그램은 매우 경쟁력 있고, 섬 특유의 생태자원으로 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사업 중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대이작도 공식 홈페이지(풀등섬 대이작도)에 풀등을 생태자원, 생태관광, 생태체험등 다양한 섹션으로 관광객에게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덕적도 18 | 나그네섬, 덕적도

- 나그네섬 마을 공동체는 사업 목적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운영 이원화 상태임. “농업회사법인 호박회관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전체적으로 “바다역시장 및 호박회관 사업”의 체제를 유지하고, 사업의 내용과 특성이 서로 상이한 점을 인정하여, 두 개의 하부조직, 즉 사업부를 운영하는 것도 마을 공동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호박회관 운영사업은 관광객과 카페의 이용고객 상승 유입에 따른 매출증대와 입소문으로 타지역의 모범 사례로 뽑힐만한 사업으로 판단됨. 사업이 확장함에 따라 이에 맞는 충분한 프로그램과 산출물이 선행되어야 함. 커피 및 호박음료와 어촌 체험의 프로그램의 제한성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호박 활용 BI”는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나. 반대로 덕적도에 호박회관 이외의 관광객 체류와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의 미흡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舊진리노인회관 건물을 리모델링”에 따른 공간의 확보는 호박회관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으나, 공간의 확보는 반드시 추가적인 프로그램과 메뉴의 개발, 덕적도 마을의 생산적인 시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바다역 시장은 주변 섬의 교통 중심과 주변 섬 특산물이 집하되는 장소로 홍보할 수 있음. 그러나 주말 2일만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의 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임. 바다시장의 상설화 및 주변 환경 개선, 덕적시장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과 익스테리어(exterior)가 필요함

장봉도 19 |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운영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마을 운영 공동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2025년 신시모도의 연륙교 연결로 관광객 유입이 편중됨에 따라, 장봉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함. 일정 기간은 배편으로 접근함에 따른 신시모도와의 차별적인 관광 프로그램이 필요함
- 주민소득사업 중 어패류를 모빌·열쇠고리·목걸이 등의 공예품으로 DIY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타 지역과 특별한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장봉도 만의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따라서 마을의 지속가능한 주민 소득사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어장이 타 섬보다 풍부한 편이며, 시즌별 축제, 특산품을 이용한 대표적인 먹거리 개발이 필요함. 육지 근교의 섬으로 접근성의 강점을 이용하여 육지에서 볼 수 없는 섬 특성을 살린 문화 축제의 개발 및 브랜드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필요함

2023년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섬 특성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기	획	인천시청, 인천관광공사(인천섬발전지원센터)
발	행	처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원	고	김태후, 김성태, 최민경
자	문	위원 김기룡, 김재호, 백주영, 장정구, 채신석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6·17층
전	화	032) 899 - 7497
팩	스	032) 899 - 7485
홈	페이지	https://www.iisland.or.kr

본 보고서의 작성내용은 인천섬발전지원센터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2023년 인천섬발전자원센터

섬 특성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